

문화나누美

예술타리



문화나누美 여러분의 전화한통이 아름다운 문화 세상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얘기[藝術寄附]해요! 휴대폰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05 + 06 2014 Vol.42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하늘
다리



FRESHNESS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싱그러움

나무가 우리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까닭은 저 햇살, 바람, 비, 흙으로부터 또한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생명력은 찬란한 봄하늘처럼 싱그럽고 향기로운 봄밤처럼 안온합니다. 유연하면서 기운차고 침묵하면서 이야기하고 겸손하면서 담대한 저 나무의 사랑법을 우리들 마음의 나이에 담을 수 있기를!



contents

02	포토에세이	ASAC Culture Trend
04	5~6월 공연 캘린더	30 테마가 있는 미술 _ 런던의 숨은 보석, 코틀드 갤러리
	ASAC Special	34 테마가 있는 공연 _ 극단 백수광부
08	인터뷰 _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38 테마가 있는 음악 _ 바로크 오페라
12	초대석 _ 박정아 작곡가	42 칼럼 _ 2부. 조절음악치료 1~2단계의 과정 설명
	ASAC Stage	ASAC 해외문화기행
18	뮤지컬 〈CATS〉	48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아침음악살롱2	ASAC News
24	뮤지컬 〈더 넥스트 페이지〉	54 2014 단원미술제 작품공모
26	오픈스페이스	57 단원 예술여행
28	이색동화	60 안산문화재단 문화공동체 사업
		61 오케스트라 후원회 결성

발행일 2014 5·6월호(통권 제42호) · 비매품 발행처 (재)안산문화재단
 발행인 김철민 편집인 김인숙 기획 기획홍보부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전화 080-481-4000 팩스 031-481-4021
 홈페이지 www.ansanart.com 디자인 및 제작 경인m&b(주) (031-231-5522~4)

「하늘다리」는 무지개를 뜻하는 말로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하는 안산문화재단의 의지입니다.

2014. 05(May)

공연은 기획/대관으로 구분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대관 구일만 햄릿 19:00 / 별무리극장	10 대관 오카리나연주그룹 이탈리아 GOB 내한공연 15:00 / 해돋이극장 안산푸른청소년 제5회 정기연주회 17:00 / 달맞이극장
11	12	13	14 기획 무대아놀자 10:20,11:30 / 달맞이극장 대관 극단우성 백구 10:00,13:30 / 해돋이극장	15 기획 무대아놀자 10:20,11:30 / 달맞이극장 대관 극단우성 백구 10:00,13:30 / 해돋이극장	16 대관 극단우성 백구 10:00,13:30 / 해돋이극장	17
18	19	20	21	22	23 대관 늙은 소년들의 왕국 16:00,20:00 / 별무리극장	24
25	26 			29 기획 아침음악살롱2 더 솔리스츠 11:00 / 별무리극장	30 기획 뮤지컬 캣츠 20:00 / 해돋이극장	31 기획 뮤지컬 캣츠 14:00,19:00 / 해돋이극장

2014. 06(Jun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기획 뮤지컬 캣츠 14:00, 19:00 / 해돋이극장	2			5 대관 NH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00 / 해돋이극장	6 대관 인어공주 11:00,14:00, 16:00 / 달맞이극장	7 대관 코코몽 11:00, 14:00, 16:00 / 해돋이극장
8 대관 코코몽 11:00, 14:00 / 해돋이극장	9	10 기획 유아렉처 10:20,11:40 / 해돋이극장	11 기획 유아렉처 10:20,11:40 / 해돋이극장 기획 ASAC공연예술제	12 기획 유아렉처 10:20,11:40 / 해돋이극장 기획 ASAC공연예술제	13 기획 더 넥스트 페이지 20:00 / 달맞이극장 기획 ASAC공연예술제 대관 경기도교습소원장연수 09:00 / 해돋이극장	14 기획 더 넥스트 페이지 15:00, 19:00 / 달맞이극장 기획 ASAC공연예술제
15 기획 더 넥스트 페이지 14:00,18:00 / 달맞이극장 기획 ASAC공연예술제	16	17 기획 더 넥스트 페이지 20:00 / 달맞이극장	18 기획 더 넥스트 페이지 20:00 / 달맞이극장 기획 ASAC공연예술제	19 기획 ASAC공연예술제 대관 상록수보건소건강음악회 19:00 / 해돋이극장	20 기획 ASAC공연예술제 대관 오즈의 마법사 10:30 / 달맞이극장	21 기획 ASAC공연예술제 대관 제7회 안산성가합창제 19:00 / 해돋이극장 대관 박윤빈 클래식기타 독주회 17:00 / 달맞이극장
22 기획 ASAC공연예술제	23	24	25 기획 무대아놀자 10:20,11:30 / 달맞이극장 기획 연극 목욕탕집 세남자 20:00 / 별무리극장	26 기획 무대아놀자 10:20,11:30 / 달맞이극장 기획 연극 목욕탕집 세남자 20:00 / 별무리극장 대관 안양축협 여성문화제 10:00 / 해돋이극장	27 기획 연극 목욕탕집 세남자 20:00 / 별무리극장 대관 책먹는 여우 11:00 / 달맞이극장	28 기획 연극 목욕탕집 세남자 15:00, 19:00 / 별무리극장 대관 책먹는 여우 11:00, 14:00 / 달맞이극장
29 기획 연극 목욕탕집 세남자 15:00 / 별무리극장 	30					

※ 공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관람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80-481-4000



안산문화재단의 미래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재단에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10년...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안산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푸른 미래에 대해 '하늘다리' 독자분들로부터 소중한 생각과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안산문화재단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생각들을

250자 내외(최소 200자 이상)로 보내 주세요.

원고와 함께 사진도(jpg파일로 사이즈는 최소 500*700pix 이상) 꼭 보내주세요.

'안산문화재단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생각'을 적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 ace1357ksk@hanmail.net (6월 27일 까지)

문의 : 안산문화재단 기획홍보부 031-481-4046

ASAC

SPECIAL

08 . . . 인터뷰 _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12 . . . 초대석 _ 박정아 작곡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 상 덕

“문화원은 지역 곳곳에 면면이 살아있는
역사, 문화적 가치들을 현재적 시점에서 재해석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과거의 가치를 현재적 가치로 재탄생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은 “문화원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향토문화, 지역, 역사, 인물, 문화유적 등이 떠오른다”며 “큰 틀에서 말하자면 과거의 일이지만 문화원은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내 31개 시군문화원과 함께 향토지역문화의 보존, 전승, 발굴 및 개발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화원연합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신다면.

먼저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자면, 문화원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향토문화, 지역, 역사, 인물, 문화유적 등이 떠오릅니다. 큰 틀에서 말하자면 과거의 것이죠. 그런데 문화원은 현재에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해 갈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화원의 역할과 존재가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화’입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오늘날에도 읽히고 그 논리와 철학이 현재 적용가능한 부분이 있기에 감동하듯이, 문화원은 지역 곳곳에 면면이 살아있는 역사, 문화적 가치들을 현재적 시점에서 재해석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과거의 가치를 현재적 가치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 말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발하는것이 도문화원연합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 구축과 각 문화원 간 협력 및 화합을 통한 시너지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의 시스템화를 통해 지방문화원에 적절한 시기에 법적, 행정적 지원과 문화원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그리고 문화사업 컨설팅 등이 연합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문화원연합회의 사업 중 올해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내 각 시·군의 다양한 문화적 환경을 아우르고 지역문화를 화합하게 하는 다양한 사업이 구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축제의 개념을 대부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세리머니 다시 말해 의식입니다. 둘째는 카니발이고, 셋째는 페스티벌입니다. 이 세가지 카테고리만 가지고 각 지역문화를 재목록화해봐도 각각의 축제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그것을 아우르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향토문화아카이브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문화원은 지역향토문화자료의 보고(寶庫)입니다. 각 지역단위 문화원에 산재돼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기획된 고급데이터로 재목록화하는 작업입니다. 사라져 가는 마을만들기 사업도 큰 틀에서 이 사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은 지역향토문화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도문화원연합회(각 시군 문화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니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청소년을 위한 직접사업을 하진 않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을 소개하자면, 먼저 초등 3학년 교과과정에 ‘내고장 알기’ 커리큘럼과 연계, 지방문화원에서 거의 3학년 전학년을 대상으로 지역알기(역사와 문화 등) 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은 문화원을 통해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학년이 되면 문화원을 통해 예절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예절교육사업은 아직 전지역에서 실행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도연합회 차원에서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몇 개의 지역에서(이천, 오산, 동두천, 광주, 광명, 화성, 고양 등) 실행하고 있습니다.

결혼 등으로 인한 이주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들에게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고장)에 대한 향토문화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자긍심 고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위한 문화원의 역할이 있다면?

이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부분이 목적사업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미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에 애정을 갖도록 만드는 일은 문화원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역사라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요.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나는 지금 서 있는 곳에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위치와 그 위치에서의 의미가 명확히 규명됐는데, 내가 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곳(지역)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모든 문화원의 목적사업의 큰 방향이 바로 이렇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주민, 다문화가족이 이땅에 살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곳이 문화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안산문화재단이 지난해 1월 설립됐습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안산문화재단에 한 마디 조언을 하신다면?

재단은 재단의 역할이 있고, 문화원은 문화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재단이 지역민을 직접 만나고, 직접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지역에서 사람과 직접 대면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는 현장의 중심에 문화원이 있는 것이죠. 재단은 바로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주민들과 치열하게 만나고 있는 문화활동가들을 네트워킹하고 지원해주는 일이 본연의 일이 돼야 합니다.

한편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난 1985년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로 창립된 뒤 지난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로 이름을 고쳤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민속문화 발굴·보존 및 발전, 문화 학술조사 및 연구, 지역문화행사 개최, 향토사 연구,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문화원형도시브랜드개발, 경기도 사라져 가는 마을조사사업, 제10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제4회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시낭송의 밤, 경기도 문화가족 한마당 등의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뮤지컬 작곡가 박정아의 행보에는 쉼표가 없다.
지난 2008년 뮤지컬 〈사춘기〉로 데뷔한
이래 그는 해마다 작품을 쏟아냈다.
〈달콤한 인생〉(2009), 〈마마 돈 크라이〉(2010),
〈에릭 사티〉(2011), 〈Trace U〉(2012),
〈공주의 만찬〉(2013) 등인데
무대의 집중조명을 받은 그의 음악은
‘중독성 있다’는 세간의 평처럼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오랜 시간 익힌 포도주의 향기가
뇌리에 각인되듯이
그는 중독성 있는 음악을 완성하기까지
긴 시간을 스스로 발효시켰다.

열린 마음엔 계산기가 없다

박 정 아 뮤지컬 ‘더 넥스트 페이지’ 작곡가

하루는 분명 24시간이지만 48시간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물리적인 시간을 불공평하게 늘리는 이들의 기술은 어떤 비결이 아니라 무소와 같은 우직한 정공법에 있다. 뮤지컬 작곡가 박정아가 그렇다. 그는 흔히 장애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피하지 않고 온 몸으로 부딪혀 나간다. 전날 새벽 3시까지 회의에 참석한 그는 아침에 일어나 남편과 두 아이의 아침을 챙기고 난 뒤 인터뷰를 하러 왔다고 했다. 오후에도 그의 일정은 촘촘하게 줄 서 있는데 얼굴에선 어떤 부담감도 읽히지 않는다. 주위의 채도까지 높여주는 생기있는 환한 웃음에 자기과장이나 자기연민의 기색이 없다. “제가 겁이 좀 없어요. 어쩌면 ‘뭘 모르는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할 수 있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야 아가들이 두 시간마다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아이들이 아가였을 땐 모유수유하면서 한 손에 펜을 들고 작곡을 했어요. 아이들이 잠드는 5분 정도의 시간에도 작곡을 했죠. 지금도 전 ‘국 끓이면서 곡 쓰는 여자’예요. 지하철에서도 곡 쓰고요. 집에 있을 땐 세 끼 새 밥을 하죠.”

가족과 일의 두 마리 토끼를 품에 안고도 뭔가 여유가 느껴지는 그의 원동력은 특유의 활기 넘치는 사랑이다. 가족을 이야기할 때나 작품을 소개할 때나 그에게선 예의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갖고 있는 설렘이 뚝뚝 묻어난다.

두 가지 색 사랑을 담은 뮤지컬 - 더 넥스트 페이지

요즘 작곡가 박정아가 몰두하고 있는 뮤지컬 작품은 〈더 넥스트 페이지(The next page)〉이다. CJ문화재단의 창작물 지원프로그램 ‘크리에이티브 마인즈’에 응모, 경쟁 끝에 뽑힌 작품으로 오는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이 작품은 지난 해 서울에서 리딩(낭독)공연으로 무대에 섰다. 리딩공연이란 무대에 올리기 전 제작자 등에게 보여주고 제작 참여를 유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다. 리딩공연 당시 이 뮤지컬의 제목은 〈반짝 내 맘〉이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성장’이죠. ‘마음의 소리를 따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10살 소녀 별이가 꿈속에서 동화 속 주인공들을 만나며 성장해 가는 과정이 색다른 시선으로 펼쳐집니다. 성장이란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나 안에 아이가 있잖아요. 관객은 내 안의 아이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 성장의 순간을 ‘반짝 내 맘’이라고 했었는데 성장이란 인생이라는 책의 한 페이지를 만 들어가는 것이란 뜻에서 ‘더 넥스트 페이지’라고 바꿨어요. 극이 옴니버스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죠.” 작곡 작업에 들어가기 전 대본을 읽으면서 이야기에 흠뻑 빠져드는 체험을 했다는 박정아 씨에게 〈더 넥스트 페이지〉는 더욱 애착이 가는 작품이라고 한다. 그는 주인공 별이와 같은 나이의 딸을 키우는 엄마이며 진정한 자신을 찾고 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이

다. 대본을 쓴 작가와 연출자는 그의 집에서 작업을 하며 현실의 별이인 그의 딸을 보며 함께 놀라워하고 진하게 한마음이 되기도 했다.

“작업을 하면서 저와 작가, 제작자, 연출자, 배우들이 일시에 눈물바다가 되었던 적이 많아요. 서로 같은 주파수대의 감성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소통하면서 너무 즐겁게 작업했어요. 열 살이란 나이는 생각할수록 참 오묘한 나이라고 생각해요. 제 딸을 봐도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새롭게 확장하는 것이 느껴져요. 작곡가인 제게 ‘엄마’라는 타이틀은 선물이에요. 아이를 키우면서 기쁨과 슬픔이 100번 오가던 성격이 500번쯤 오가게 되었다니! 그 감성이 제가 곡을 쓰는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단 자리 수의 나이에서 십대로 진입하는 아이의 타인을 향한 성숙한 사랑,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을 바라보는 용기 있는 사랑-. 작곡을 해가면서 이처럼 두 가지 색, 아름다운 사랑이 싹 트고 꽃 피는 것을 느꼈다는 박정아 씨는 관객들의 마음 밭에도 그 꽃이 피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미운오리새끼, 두려워하지 않다

작곡가 박정아의 이력은 신선하다. 대부분의 작곡가들이 어릴 적부터 악기를 다루고 곡을 쓰기 시작한 데 비해 그는 초등학교 시절 잠시 피아노를 배운 이래로 음악과는 거리가 먼 길을 걷다가 대학 4학년 때 문턱 높기로 유명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작곡과에 합격했다. 먼 길을 돌아온 셈이다. 공부를 곧잘 해서 우등생 소리도 들곤 했던 그였지만 공부는 그의 적성이 아니었다. 고등학교에서 이과생이었지만 역시 맞지 않아서 힘들었고 몇 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대학에서는 문학을 전공했다. 갈등의 학창시절이었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제일 먼저 접한 것은 가요였는데 가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였지만 멜로디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잠시 피아노를 배웠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부모님께서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가요에 빠질까봐 걱정하셨죠. 애초에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중고등학생 시절에 엄마는 제가 녹음해둔 카세트테이프를 망치로 부수는 게 일이었어요. 고등학교 방 송반에 들어가서 음악을 싹쓸 들었어요. 초·중학생 시절에 가요에 빠졌다면 고교시절엔 록에 미쳤었죠. 대학에서 독문학을 전공했지만 정작 기타 동아리 활동에 폭 빠져 지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틈에서 음악에 미쳐있고 문학도 사이에서 기타에 빠져 있으니 사람들은 그를 미운 오리새끼처럼 별나게 봤지만 스스로는 ‘잘못된 길’에 들어섰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절대음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작곡을 권해준 기타동아리 선배들은 그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으니 그의 긍정적인 성격은 날개를 달았다. 두려울 것이 없었다. 하여 남들은 취업이다 뭐다 해서 엄두를 내지 못할 대학 4학년 때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며 작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가요에서 시작해 록으로 이어졌던 그의 음악세계는 한예중 작곡과에서 클래식 등으로

확장되었다. 남들은 오랜 시간 입시를 준비해도 수 두룩하게 낙방한다는 한예중에 일년 반의 준비로 입학하게 된 비결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무모함이죠! 이것저것 계산을 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한예중 입학을 준비할 때만 해도 이 학교 문턱이 높은 줄도 몰랐어요. 다만 대학 때 방송국에서 FD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드라마 음악 제작에 참여하고 싶어서 관계자에게 여쭙았는데 작곡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에 자존심이 상해 도전해본 거예요. 마침 주변에 한예중에 다니는 후배가 있어서 그 친구를 스승삼아 작곡을 배우고 시험도 치고 하면서 준비했어요. 한예중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연애도 했죠. 작곡을 공부하면서 드디어 잘못된 길을 벗어나 제 길을 가는 기분이었어요.” 작곡과 1·2학년 때는 클래식, 3·4학년 때는 단편 영화와 애니메이션 작품에도 참여하고 한예중의 무용원과 영상원 등이 협업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그간 ‘잘못된 길에서의 방향’은 오히려 다양한 자양분이 되어주었다.

꿈꾸는 카멜레온 작곡가

26살에 한예중에 입학해서 본격적으로 작곡을 시작한 박정아 씨는 28살에 결혼을 하고 1년 뒤 딸을 출산한 뒤 뮤지컬에 뜻을 두었다. 가요, 록, 클래식은 물론이고 라틴, 힙합, 재즈, 팝 등등 알수록 끝이 없는 음악의 세계를 여행하며 그 속에 드라마를 펼치는 뮤지컬에 마음이 갔다. 2008년 데뷔 후부터 꾸준히 뮤지컬 작곡을 해온 그는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녹여냈는데 특히 록 뮤지컬의 타이틀을 단 〈TraceU〉, 〈Musical A〉, 〈MaMa Don't Cry〉 등은 한번 본 관객이 몇 차례씩이나 다시 찾는 문화를 만들어냈으며 작품 속 음악을 외운 관객들이 극중 코러스를 넣어주었고 커튼콜을 1시간여 동안 하는



등의 기록을 만들기도 했다.

뮤지컬계에서 이제 작곡가 박정아는 ‘믿고 맡기는 작곡가’로 통하지만 그는 매 작품에서 관객들이 박정아를 짐작할 수 없기를 바란다. 변화무쌍한 ‘카멜레온 작곡가’를 지향하는 것인데 기대 그 이상의 감동을 주는 음악이 그러하기 때문이란다.

데뷔 6년 만에 거둔 알찬 결실들에 대해 그는 좋은 파트너들을 만난 행운과 놀라운 음악 그 자체, 그를 믿어주는 가족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좀 예뻐 오긴 했지만 꼭 알맞은 자기자리를 찾은 이 예술가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세상에 없던 노래의 감동을 선사하고 싶다는 꿈을 들려줬다. 

ASAC 아침음악살롱

ASAC [아침]은 Artisan Arts Center의 이니셔티브로,
안산문화재단의 기획프로그램 브랜드입니다.



ASAC STAGE

음악으로
채우는 상쾌한 아침

2014 ASAC 아침음악살롱

매 홀수 달 마지막 주 목요일 11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티켓 전석 1만 8천원 주최 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제작 THE HOUSE CONCERT

문의 콜센터 080-481-4000 후 인터파크 1544-1555

협찬 밀키브라운

18 . . . 뮤지컬 <CATS>

22 . . . 아침음악살롱2

24 . . . 뮤지컬 <더 넥스트 페이지>

26 . . . 오픈스페이스

28 . . . 이색동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개관 10주년 기념 “뮤지컬 〈캣츠 내한공연〉”



세계를 매료시킨 명작 그 이상의 감동 뮤지컬 캣츠, 6년 만의 내한공연

세기를 초월한 불멸의 명작뮤지컬〈캣츠〉를 드디어 6년 만에 내한공연으로 만난다! 아름다운 음악과 화려한 무대, 환상적인 안무로 전 세계를 매료시킨 뮤지컬〈캣츠〉 내한공연은 5월30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공연’으로 거대한 막을 올린다.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인 〈캣츠〉는 뮤지컬의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와 최고제작자 카메론 매킨토시가 콤비를 이루어 탄생시킨 작품으로 전 세계 30개국, 300여개 도시에서 15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7천300만명 이상을 감동시켰다. 현재도 UK/유럽에서 투어가 활발히 진행중이며, 최근에는 유니버설픽처스와 영화판권계약이 성사되며 본격적인 영화화 작업에 들어가는 등 최고의

스테디셀러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성별, 세대를 아우르며 공연 때마다 높은 좌석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현재까지 관객 120만명을 돌파하며 가장 사랑받는 뮤지컬명작으로 그 위상을 견고히 하고 있다. 6년 만의 내한공연으로 더욱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캣츠〉 내한공연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연을 시작으로 서울, 대구, 부산 등으로 지방 투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월드 클래스의 실력과 주역들이 모인 벅찬 감동 무대 〈캣츠〉 무대의 숙련된 배우들로 화려하고 다이내믹한 작품의 진수

이번 내한공연은 30년 넘게 세계 각국에서 〈캣츠〉를 연출한 조앤 로빈슨을 비롯한 오리지널 크리에

이티브팀과 최고 역량의 배우들로 구성되어 화려하고 다이내믹한 〈캣츠〉의 진가를 느낄 수 있다. 1년에 한번 열리는 젤리클 고양이들의 축제를 그린 뮤지컬 〈캣츠〉는 폭발적인 노래와 다채롭게 펼쳐지는 화려한 쇼로 관객을 휘어잡는 작품이다. 무대위를 누비는 각양각색의 고양이들을 보는 것 또한 〈캣츠〉의 재미로 공연때마다 수십 번씩 관람하는 반복 관람객을 만들어 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이러한 극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 영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실력과 배우들과 전 세계 〈캣츠〉무대에서 활동한 노련한 베테랑 배우들이 다이내믹하고 환상적인 무대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멈추지 않는 신화, 끝나지 않은 감동 국내 누적관객 120만... 흥행불패의 신화!

〈캣츠〉는 국내에서도 남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다. 국내 초연 이후 경이로운 기록과 흥행불패의 신화를 이어오며 국내에서 1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몇 안 되는 대극장 뮤지컬로서 한국 뮤지컬 역사와 함께 한 최고의 작품으로 꼽힌다. 1994년 첫 내한공연은 전석 매진 흥행을 기록했으며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2003년에는 가변형 공연장인 빅탑시어터를 통해 세계 4대 뮤지컬로는 최초로 전국투어 공연을 펼쳤고 각 도시마다 9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했다. 또한 2007년 내한공연은 ‘올해 히트뮤지컬 1위’, ‘네티즌 선정 올해 최고의 공연 1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고 2008년에는 전 세계 15번째 언어로 한국어 공연을 선보였다. 2011년에는 〈캣츠〉 탄생 30주년을 기념한 라이선스 공연을 가지며 대성황을 이뤘다. 단 한 차례의 실패도 없는 이례적인 흥행기록을 갖고 있는 〈캣츠〉. 또 한 번 감동의 물결이 안산에서 시작된다.

세기를 초월한 명작, 영원한 스테디 셀러

앤드루 로이드 웨버 작곡, 카메론 매킨토시 제작의 뮤지컬 〈캣츠〉는 TS 엘리엇의 우화집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Old Possum’s Book of Practical Cats)’를 토대로 뮤지컬의 본고장인 영국 웨스트엔드 뉴런던시어터에서 1981년 초연되었다. 웨스트엔드에서는 1981년부터 2002년 5월까지 21년간 8,950회 공연되었으며, 브로드웨이에서는 1982년부터 2000년 9월까지 18년간 7,485회의 기록을 세우며 가장 통련한 작품으로 기네스북에 오르는 등 뮤지컬의 다양한 기록을 양산해 냈다. 토니상 작품상, 작사/작곡상, 조명상, 의상상 등 7개 부문 수상 및 로렌스 올리비에상, 드라마 데스크상, 모리리어워드 등 런던, 뉴욕, 파리의 주요 뮤지컬상을 수상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키면서 유례없던 흥행기록을 세우며 뮤지컬의 역사를 바꾼 작품으로 ‘지금 그리고 영원히(Now And Forever)’라는 모토에 걸맞게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받는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놀라운 상상력이 만들어진 마법과도 같은 환상 무대!

1년에 한번 열리는 젤리클 고양이들의 축제를 그린 〈캣츠〉는 화려한 춤과 음악, 환상적인 무대 매커니즘으로 즐거움을 주는 뮤지컬이다. 극장에 들어서면 순간 집채만한 크기의 깡통과 쓰레기로 뒤덮인 무대가 시선을 사로잡는데, 고양이의 눈으로 바라본 생활소품에 맞춰 3배에서 크게 10배까지 부풀려 제작된 것이다. 대형 스케일의 ‘젤리클송’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고양이들의 춤의 향연이 펼쳐지는데 아크로바틱, 탭댄스, 커플윈드밀 등 화려하고 다채로운 쇼는 관객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하다. 〈캣츠〉의 배우들은 고양이의 유연성을 표현하기 위해 고도로 훈련되어 춤을 출 때 발자국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뮤지컬 〈캣츠〉	
날짜. 2014. 5. 30(금) ~ 6. 1(일)	관람료. R석 120,000원 S석 100,000원 A석 70,000원 B석 40,000원 날개석 50,000원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관람시간 2시간 40분(인터미션 포함)	주최. (재)안산문화재단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제작. 설앤컴퍼니, CJ E&M
AWARDS	

- 1981년_영국 로렌스 올리비에상, 올해의 뮤지컬상, 최우수 안무상(질리안 질)
- 1981년_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상, 최우수 뮤지컬상
- 1982년_미국 그래미상 수상(오리지널 런던 캐스트 앨범)
- 1983년_미국 그래미상 수상(오리지널 브로드웨이 캐스트 앨범)
- 1983년_미국 토니상, 최우수 뮤지컬 작품상, 최우수 극작, 최우수 음악상, 연출상(트레버 난), 최우수 여우 조연상(베티 버클리), 최우수 의상상(존 내피어), 최우수 조명상(데이비드 허쉬)
- 1983년_미국 드라마 데스크상, 최우수 음악상, 최우수 의상상, 최우수 조명상
- 뉴욕_뉴욕 비평가협회상, 최우수 뮤지컬 작품상
- 프랑스_몰리엘리상, 최우수 뮤지컬 작품상
- 캐나다_도라 메이버머어상, 최우수 뮤지컬 작품상 포함 7개 부문 수상



또한 정교한 분장과 움직임으로 인간 고양이를 탁월하게 표현해 낸다. 의상은 몸의 움직임을 잘 볼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제작되었는데 조명 아래 드러나는 S라인은 사람의 섹시함이 아닌 고양이의 요염함과 당당함을 느끼게 해준다. 정교한 고양이의 표현과 화려한 댄스까지 결합된 〈캣츠〉는 관객을 흥분시키는 데 충분하다.

각양각색, 사연 있는 30여 마리의 고양이를 통해 삶의 깊은 통찰을...

1년에 한 번 있는 고양이들의 축제 ‘젤리클 볼’에 모인 각양각색 고양이들은 모두 독특한 인생경험을 가지고 있다. 새로 태어날 고양이를 선택받기 위해 그들이 풀어놓는 그들의 개성있는 삶에는 인생의 단면이 녹아있다. 20여곡에 이르는 뮤지컬 넘버는 고양이들의 독특한 삶만큼이나 다양한 곡조로 감상의 풍부함을 더해준다. 뮤지컬의 즐거움과 함께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도 〈캣츠〉의 또 다른 매력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당신이 기다린 감동의 순간! 불멸의 클라이맥스 ‘메모리’
뮤지컬 〈캣츠〉를 설명할 때 그리자벨라가 부르는 ‘메모리’를 빼놓고 이야기하기 힘들다. 인간의 희로애락, 죽음에 대한 인식,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해 내는 그리자벨라를 통해 듣게 되는 메모리는 그 어떤 곡보다 진한 감동을 남긴다. 런던 초연 당시 그리자벨라역의 일레인 페이지의 목소리가 담긴 오리지널 음반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그래미 베스트 앨범상을 수상하였다. 지금까지 바브라스트라이 샌드를 비롯해 플라시도 도밍고, 사라 브라이트만 등 150여명이 넘는 세계적인 유명 아티스트들에 의해 180회 이상 레코딩 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을 정도로 불멸의 명곡이다.

SYNOPSIS 1막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 고양이들만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오늘은 일년 중 가장 특별한 밤 젤리클 고양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이 젤리클 고양이임을 경축하는 자리이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고양이들은 세 개의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나는 집에서 쓰는 것, 하나는 좀 더 격식을 갖춘 것, 마지막으로 비밀 이름이다.

이 쇼의 내레이션을 맡은 멍거스트랩이 젤리클 고양이들은 일년에 한 번씩 만나 축제를 연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들은 현명한 올드 듀터러노미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가 한 고양이를 선택해 천국으로 보내 새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멍거스트랩이 하루 온종일 잠을 자는 제니애니닷을 소개한다. 그녀는 쥐들에게 음악과 뜨개질을 가르치고 바퀴벌레들을 쫓아다닌다. 두 번째 고양이는 럼 텀터거로, 암고양이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은 바람둥이이다.

어두워질 무렵 그리자벨라가 나타난다. 그녀 역시 젤리클 고양이 중 하나이긴 하지만 수년 전에 바깥 세상으로 나갔다. 한때는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누추하고 낡은 모습이다.

다음은 뚱뚱한 버스토퍼존스, 언제나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된 하얀 각반을 차고 영국 선술집이나 클럽에서 먹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맥캐버티가 어디선가 큰 소란을 피우자, 다른 고양이들이 겁에 질려 숨을 곳을 찾는다. 무대 밖에서 킁킁거리는 웃음소리가 나더니 언제나 같이 사는 가족과 문제를 일으키는 몽고제리와 럼플티저가 들어와 한바탕 장난친다.

듀터러노미가 도착하자 고양이들은 다시 모인다. 멍거스트랩이 듀터러노미를 위해 오락거리를 마련한다. 고양이들은 ‘피크와 폴리클 개들의 무시무시한

전투’라고 이름 붙인 쇼를 진행한다. 다시 한번 맥캐버티에 의해 고양이들은 달아난다. 듀터러노미가 그들을 달래서 다시 모인다. 이제는 모든 고양이가 축하의 춤을 추는 일년에 한번 있는 큰 댄스파티가 열린다. 그리자벨라가 다시 한번 축하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하지만 고양이들은 그녀를 경멸하고, 그녀는 자신의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절을 노래한다.

2막 ‘헤비사이드레이어’에서 새로운 삶을 얻을 젤리클 고양이는...

극장 고양이 거스가 들어온다. 그리고 거스의 상상 장면이 이어지는데 ‘그로울타이거의 마지막 접전’이란 연극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기차 고양이 스킴 블상스가 자신을 소개한다. 모든 고양이에게 친근한 아저씨 같은 스킴블상스는 기차에 올라 모든 세부사항까지 완벽하도록 만든다.

세 번째로 분위기를 망치는 소란 속에 이번에는 악명 높은 맥캐버티가 나타나고, 심복이 듀터러노미를 어디론가 납치해 간다. 맥캐버티가 듀터러노미로 변장하고 나타나지만 곧 들통 나고 멍거스트랩을 비롯한 수컷고양이와 싸운다. 거의 저가던 맥캐버티가 모든 전등을 나가게 해서 젤리클 고양이는 어둠 속에 남게 된다.

럼텀 터저가 마법을 하는 미스터 미스토펠리스에게 부탁해 올드 듀터러노미를 되돌려 놓는다. 마침내 올드 듀터러노미가 젤리클 고양이를 선발하려는 순간, 그리자벨라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는 ‘메모리’를 부르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그녀에게 등을 돌렸던 다른 고양이들도 그녀를 다시 받아들인다. 올드듀터러노미는 그리자벨라를 고양이들의 천국, ‘헤비사이드레이어’로 올라가 다시 태어날 고양이로 선택한다. 올드 듀터러노미는 그녀를 마법의 타이어에 태워 하늘로 승천시키고, 이로써 일년 중 단 하룻밤만의 고양이 축제는 막을 내린다. 



아침음악살롱 2

여섯 남자의 유쾌한 하모니 '더 솔리스츠'

안산문화재단이 5월 29일 목요일 오전11시 한국을 대표하는 아카펠라 그룹 '솔리스츠'의 공연으로 '2014 ASAC아침음악살롱' 두 번째 문을 연다.

아카펠라 그룹 솔리스츠는 1992년 결성된 한국 최초의 아카펠라그룹으로 모테트, 마드리갈, 예술가곡, 심포니 등의 클래식 레퍼토리와 국악, 가요, 팝송, 동요,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전국 순회공연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13개국에서의 해외공연 등 400여회의 단독 콘서트와 1,800여회의 초청공연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아시아 최고의 아카펠라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수년 전부터 시도해 온 국악 아카펠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우리 음악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2014년 확 바뀐 진행방식으로 선보이는 즐거움과 재미가 가득한 마룻바닥 음악회!

2014아침음악살롱은 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없는 작은 공간에서 연주자와 관객이 어우러져 진행되는 공연으로 연주자의 작은 숨소리와 땀방울 하나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된 하우스콘서트 방식(마룻바



닥 음악회)으로 진행된다. 지난 3월의 첫 번째 무대였던 <드니성호>의 무대로 뜨거운 호응을 얻은 ASAC아침음악살롱은 기존 객석에 앉아서 공연을 보는 방식과 더불어 객석이 아닌 무대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는 이 새로운 형식의 음악회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아침음악살롱2

날짜.
2014. 5. 29(목) 11시

장소.
안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관람료.
전석 1만8천원(공연 후 다과 제공)

출연.
더 솔리스츠

이 세상을 떠도는 모든 소리 중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일 것이다!
한국 공연예술계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아카펠라계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더 솔리스츠! 카운트테너, 바리톤, 베이스의 남자 6명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하모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간의 음역을 넘어선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음역을 소화한다. 이들은 노래뿐만 아니라 트럼펫, 기타, 베이스 등 각종 악기의 소리까지도 모두 성대로만 묘사하여 연주하며 그 기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폭 넓은 레퍼토리로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을 비롯해 비틀즈의 오블라디-오블라다(ob-la-di-ob-la-da), 아리랑 연곡, Sing Along, 섬집아기, 임진강, <윌리엄 텔> 서곡 등 교향곡, 오페라 등 클래식 뿐만 아니라 가요, 전통민요,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들려줄 것이다. 



ASAC 창작뮤지컬

‘더 넥스트 페이지’ (Musical The Next Page)

“어른과 아이의 감성을 잇다! 청춘을 위한 동화 책장을 넘겨 그 다음 페이지를 원한다면 누구나 청춘입니다.”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성장해 온 국내 뮤지컬 시장은 소재와 장르가 점차 다양해지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들이 주요 관객층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작품들이 절대적인 강세를 띠고 있으며, 어른과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뮤지컬은 그저 아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공연이라는 명칭으로 분류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공연이 필요하다는 제작진의 공감아래 개발되는 뮤지컬<더 넥스트 페이지>는 가족 그리고 청춘을 위한 동화이다.

더 넥스트 페이지 (Musical The Next Page)

날짜.
2014. 6. 13(금) 20시 ~ 6. 18(수) 6일 7회 공연
화.수.금_8p.m/토_3, 7p.m
일_2, 6p.m (110분 소요)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관람료.
5만원, 3만원, 2만원
할인_재단회원 20%, ASAC연극가족 30%,
청소년 50%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출연.
한성식, 이영미, 김보현, 조형균, 이현진 외

작가_한지안, 작곡_박정아
연출_김태형, 음악감독_김길려

예매처.
콜센터 080-481-4000
인터파크 1544-1555
단체관람문의 031-481-4022
(청소년 특별공연 가능)

이야기 너머의 이야기, 상상의 틀을 깨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우리 아이가 친구가 된다면..?
<더 넥스트 페이지 (The Next Page)>는 꿈속으로 모험을 떠나는 딸 ‘별이’가 꿈속나라의 용맹공주였던 ‘엄마’를 만나게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며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 아이가 서로 친구가 된다면 지금처럼 서로 이해되지 못하는 관계란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시작한다. 인어공주, 심청이, 백설공주, 신데렐라, 콩쥐, 그레텔 등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동서양의 동화 속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것만으로 얼핏 아동극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슴 속 한 구석에 소녀와 소년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모든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다. 동화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그 주인공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쩌면 누구나 궁금해 하며 상상하는 그 다음 페이지를, 우리의 삶의 다음 페이지와 연결시켜 흥미로운 이야기 틀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펼쳐낸다.

안산문화재단 자체제작, 창작뮤지컬 <더 넥스트 페이지>

뮤지컬 <더 넥스트 페이지 (The Next Page)>(리딩공연 당시 제목은 ‘반짝, 내 맘’)의 첫 개발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어공주와 심청이’의 이야기에서부터 모티브를 얻은 지혜원 프로듀서는 서로를 좀 더 이해해가는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들고 싶었다. 박정아 작곡가와 함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으며 이후 한지안 작가, 김태형 연출의 합류로 본격적인 작품의 뼈대를 다져나가기 시작했다. 젊은 스태프들의 의기 투합이었던 것만큼 프로듀서와 창작진은 많은 시간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적극적으로 작품 개발에 참여해왔다. 2013년 10월 CJ크리에이티브 마인즈의 중대형 극장용 콘텐츠 개발 첫번째 지원작으로 선정되어 2차례에 걸쳐 리딩 공연을 마쳤으며, 이후 지속적인 수정과 개발의 과정을 거쳐 2014년 6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프로듀서와 창작진과, 그리고 비영리 공공 공연장과의 긴밀한 협업과 단계별 개발 과정을 거쳐 신선한 구성과 탄탄한 완성도를 지닌 작품으로 공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언젠가 한때는 아이였고, 언젠가는 어른이 될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성인 뮤지컬과 아동극으로 양분화된 국내 뮤지컬 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수준높은 무대가 기대된다.



ASAC 오픈스페이스 프로젝트 2. [연극]



극단 창작스튜디오 자전거 날다
〈목욕탕집 세 남자〉

날짜.
2014. 6. 25(수) ~ 6. 29(일)
수.목.금_8p.m/토_3.7p.m
일_3p.m (80분 소요)

관람료.
2만원
할인_재단회원 10%, ASAC연극가족 30%.
청소년 50% (관람연령 10세 이상 관람가)

출연.
장항석, 이승구, 최영열, 이상욱, 민윤영 외

작가_정숙희, 연출_유수미
무대_노주연, 작곡_김용순, 의상_한혜수

티켓오픈.
4. 16(수) 오후 2시

예매처.
콜센터 080-481-4000
인터넷 1544-1555
단체관람문의 031-481-4022

“이웃들의 뜨끈한 정으로 가득 찬 따뜻한 휴머니즘 코미디!”

조금은 뒤쳐진 조금은 모자란, 하지만 결혼을 꿈꾸는 당돌한 세 남자의 미스 김 쟁탈전!

서울 변두리 옛날 목욕탕!

때밀이와 이발사와 수건을 대주는 세탁이 카운터 미스 김을 서로 차지 하려고 각자 거금 천 만원을 몰래 빌려준다.

주인할머니는 새로 생긴 찜질방 때문에 손님이 없다며 임대료 인상을 통보한다. 갈 곳이 없는 이들에게 미스 김마저 행방을 감춘 지 일주일 째. 서로 자기가 미스 김과 결혼할 거라 꿈꾸던 세 남자는 미스 김이 주 인할머니의 손녀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미스 김은 전 남편의 보석 금으로 돈을 썼다며 이발사와 때밀이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하며 괴로 워한다. 세탁은 할머니의 강요로 미스 김과 결혼을 결정하지만 약속한 성당에 나오지 않는 미스 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세 남자는 목욕탕 이라도 자신들의 명의로 남기려하지만 새 주인이 나타나는데....

About 창작스튜디오 자전거 날다(대표 장항석)

사람의 동력으로 자전거가 움직이듯 연극도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소통, 고뇌, 인내, 협동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름. 연극을 통해 배우와 관객이 소통하는 것을 가치있게 여기는 연극 공동체이다.

연출_유수미

주요연출작 〈도시녀의 칠거지악〉〈홀연했던 사나이〉〈타오르는 어둠 속에서〉
〈도화원 청춘기〉 외 다수
수 상 2006 밀양 국제공연예술제 최우수작품상, 연출상, 음악상
2007 김천 가족연극제 은상

배우_장항석(이발사 역)

주요출연작 〈우주인〉〈한밤의 천막극장〉〈크리스마스에 삼십만원을 만날 확률〉
〈남사당의 하늘〉〈MACBETH〉〈오장군의 발톱〉〈한여름밤의 꿈〉
〈라이어〉〈리어왕〉〈템페스트〉〈철종13년의 셰익스피어〉〈파티〉
〈뮤지컬 광개토대왕〉〈정글이야기〉 외 다수

배우_이승구(때밀이 역)

주요출연작 〈우주인〉〈그와 그녀의 옷장〉〈한밤의 천막극장〉〈홀연했던 사나이〉
〈타오르는 어둠속에서〉 외 다수

배우_이상욱(주인 할머니 역)

주요출연작 〈미운남자〉〈백치백지〉〈매리지 블루〉〈도시녀의 칠거지악〉
〈외계인의 열정〉〈사마귀〉〈TV동화행복한세상〉〈생존도시〉 외 다수

배우_최영열(세탁 역)

주요출연작 〈광인일기〉〈타오르는 어둠속에서〉〈불안하다 ver.3 텔레파시 이야기〉
〈관촌수필, 웅점이를 찾습니다〉〈죄와 벌〉〈어른의 시간〉
〈성북동 갈매기〉〈푸르가토리움〉〈메밀꽃 필 무렵〉
〈문득 멈추어서서 이야기하다〉〈로미오와 줄리엣 Grunge〉 외 다수

배우_민윤영(미스김 역)

주요출연작 〈꽃상여〉〈백치백지〉〈힐링음악극 빵〉〈고백〉〈타오르는 어둠 속에서〉
〈도시녀의 칠거지악〉〈도화원청춘기〉 외 다수



이색동화

“지저분한 쓰레기통에서 살아 움직이는 요정들이 나타난다?”

마법 문을 지나고 거대한 파도를 지나 만나는 장난꾸러기 병정들의 익살맞은 환영식! 그들이 이끄는 마술과도 같은 환상의 공간이 펼쳐진다. 어린이들은 버려진 물건들의 다양한 변형을 통해 하늘을 날고, 텔레비전 속에 숨고, 바다 위를 달리는 거짓말 같은 세상을 만나게 된다. 오브제의 활용과 음악, 움직임으로 오감을 자극하며 어린이들에게 상상의 세계에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몸풀의 맞춤 체험 공연!

관객과 공연자가 어우러져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색다른 상상체험연극
〈이색동화〉

예술은 어렵다?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 극단 몸풀이 나섰다! 단순히 공연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과 함께 생각하고, 움직이고, 관객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공연은 완성된다. 체험연극과 비눗방울, 서커스 공연이 절묘하게 연결된 환상의 공간에서 관객과 배우의 구분 없이 함께 움직이며 만드는 ‘체험연극’의 세계! 어린이들은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선과 상상력, 감각들을 만나볼 수 있다.

관람 포인트

1. 객석에 앉아서 관람하는 공연이 아닌 일어나 배우가 되어 공연을 즐기세요!
2. 요정들이 찾아낸 다양한 물건들을 직접 만지고 움직여보세요!

단체소개

2002년 공연, 기획, 교육 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해오던 이들이 모여 창단한 몸풀은 공연 제작 및 창작기관 ‘극단 몸풀’과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공연 개발 및 운영기관 ‘몸풀 상상력 훈련소’, 문화예술 기획 및 축제 운영기관 ‘문화 이꿈이 풀’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공연예술을 비롯한 문화생태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색동화

날짜.
2014. 6. 6(금) 14:00 1회
2014. 6. 7(토) 14:00 1회

소요시간.
60분

단체명.
극단 몸풀

후원.
경기문화재단 201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ASAC

CULTURE TREND

30 . . . 테마가 있는 미술 _ 런던의 숨은 보석, 코틀드 갤러리

34 . . . 테마가 있는 공연 _ 극단 백수광부

38 . . . 테마가 있는 음악 _ 바로크 오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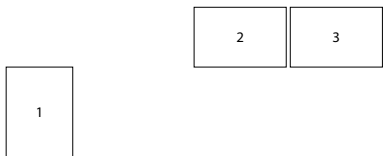
42 . . . 칼럼 _ 2부. 조절음악치료
1~2단계의 과정 설명



■ 테마가 있는 미술 - 세계의 미술관(2)

런던의 숨은 보석, 코톨드 갤러리(Courtauld Gallery)

햇빛을 보기 힘든 런던에서 날씨가 좋은 날이면 어김 없이 템스 강에 인접한 서머셋 하우스의 테라스에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 옛날 귀족처럼 여유롭게 차를 즐기며 템스 강의 햇살을 감상했다면, 이제 건물 안으로 걸음을 옮겨보자. 강변의 풍경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명화들이 당신을 기다린다.



1. 고흐, 〈귀를 자른 자화상〉, 1889년
2. 마네,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1881-82년
3. 루벤스, 〈십자가에서 내려지심〉, 1613년

템스강에 인접한 런던의 명소

코톨드 갤러리는 런던을 가로지르는 템스 강변에 위치한 서머셋 하우스(Somerset House) 안에 위치해 있다. 영국의 가장 위대한 공공 건축물의 하나로 꼽히는 서머셋 하우스는 1786년 윌리엄 챔버스(William Chambers)에 의해 조성되었다. 템스 강변에 면한 건물 외관은 신고전주의 양식의 벽기둥과 열주로 구성된 포르티코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템스 강 맞은편의 스트랜드 사이드로 나있는 주출입구를 걸어 들어오면 널찍한 광장이 위치하고 중심에는 한여름 더위를 식혀줄 바닥 분수가 관광객을 맞이한다. 한겨울에는 광장을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기도 한데 한겨울에도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는 런던의 기후상 보기 쉬운 광경은 아닐 듯하다. 서머셋 하우스는 본래 왕립미술원과 골동품협회 등 미술 관련 기관과 다양한 관공 부서를 위한 사무용 건물로 설계되었다. 19세기에 들어 동서로 확장되면서 현재의 외관을 완성하였으며, 1989년 코톨드 갤러리가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현재 런던시는 킹스 크로스로부터 템스 강을 잇는 거리를 중심으로 내셔널 갤러리를 비롯한 12개의 대표적인 미술관을 소개하는 ‘런던 미술관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톨드 갤러리 역시 이에 속해있다.

코톨드 갤러리는 관광객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전 세계 미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런던의 그 어떤 미술관보다도 사랑받는 장소이다. 코톨드 갤러리의 진면목은 문을 들어서는 순간 눈부신 빛을 발하는 수준 높은 소장품들을 통해 확인된다. 이곳을 ‘런던의 숨은 보석’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코톨드 갤러리의 설립 배경과 역사

코톨드 갤러리의 컬렉션은 미술애호가들의 기부 을 통해 완성되었다. 코톨드라는 명칭 역시 초기 컬렉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무엘 코톨드(Samuel Courtauld)의 이름을 딴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초기 르네상스 미술품부터 현대 미술품까지 각종 회화와 드로잉, 조각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프랑스 인상주의와 후기인상주의 회화 컬렉션이 특히 뛰어나다. 컬렉션의 규모는 530점의 회화와 26,000점 이상의 드로잉과 판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갤러리의 설립은 외교관이자 컬렉터인 리 자작(Lord Lee of Fareham), 미술사가인 윌트 경(Sir Robert Witt), 사업가이자 컬렉터인 사무엘 코톨드 세 명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1930년대 미술 평론가인 로저 프라이(Roger Fry)가 영국 내에 우수한 미술사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이에 동조한 리 자작과 윌트 경, 코톨드가 함께 전문 미술연구기관인 코톨드 미술연구소와 부속 갤러리인 코톨드 갤러리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당초 갤러리가 오픈한 곳은 런던 포트만 스퀘어에 위치한 ‘홈 하우스(Home House)’라는 건물로 코톨드가 그의 컬렉션을 전시하기 위해 임대한 곳이었다. 1932년 이곳에서 최초의 코톨드 미술연구소와 갤러리가 개관하였으며 이후 60년 가까이 존립하다가 1989년 현재의 서머셋 하우스로 이전하였다.

르네상스에서 후기인상주의까지

사무엘 코톨드는 1910년대부터 로저 프라이의 조언에 따라 많은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회화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다. 그의 컬렉션에는 마네의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과 르누아르의 〈관람석〉, 고흐의 〈귀를 자른 자화상〉을 비롯하여 모네와 피사로의 풍경화가 포함되었다. 인상주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탄성을 지를 만한 수준의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셈이다.

2차 대전 이후에는 리 자작에 의해 크라나흐의 〈아담과 이브〉와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지심〉등 수많은 고전 명화들이 추가되었다. 1952년에는 윌트 경에 의해 2만점의 판화와 3천점의 드로잉이 기증되어 영국 드로잉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1958년에는 블룸즈버리 그룹의 화가인 바네사 벨과 던컨 그랜트의 작품을 포함한 20세기 영국 현대미술 작품들이 평론가이자 오메가 공방의 설립자로 활약했던 로저 프라이의 딸인 파멜라 디아멘드(Pamela Diamand)에 의해 기증되었다.

갤러리에는 19세기 인상주의 회화와 현대미술품 외에도 초기 르네상스 회화와 중세에 만들어진 에나멜과 상아 조각상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들은 1966년 유명 컬렉터인 토마스 감비에르 페리의 손자인 마크 감비에르 페리(Mark Gambier-Parry)에 의해 기증된 것이다. 현재 이들 작품은 갤러리 1층에 위치한 독립 공간에 별도로 전시되어 있다.

1970년 이후에도 터너의 수채화를 비롯한 컨스터블과 제인즈버러 등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주요 작품이 꾸준히 기증되어 수집 품목을 늘렸다. 1978년에는 세일런 백작(Count Antoine Seilern)에 의해 플랑드르 르네상스 화가인 브뤼겔을 비롯해 반다이크, 티에폴로, 루벤스의 작품이 기증되었다. 세일런의 기증품에는 피사로, 드가, 르누아르, 코코슈카 등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작가들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코톨드 갤러리에서 만나야 할 명화들

코톨드의 소장품 중 단연 첫 번째로 만나야 할 작품은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지심〉이다. 어린 시절 즐겨보았던 동화 『플란다스의 개』에서 주인공 네로가 만나고 싶어한 바로 그 그림. 동화 속 배경으로도 등장한 네덜란드 안트베르펜 성당의 제단화로 1614년에 제작되었다. 바로크 미술 특유의 역동성과 비장함을 잘 보여주는 그림으로 루벤스의 명작으로 꼽힌다. 십자가로부터 내려지는 예수의 몸을 바치고 있는 인물들은 사도 요한과 그리스도의 제자 니코데

모,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다. 마리아는 화면 왼쪽에서 예수의 팔을 잡으며 슬픔과 애도를 표하고 있다. 세폭 제단화로 왼쪽 패널은 마리아를 방문하는 엘리자베스의 모습을, 오른쪽 패널은 교회를 방문한 아기 예수의 일화를 다루고 있다.

두 번째 작품은 프랑스 인상주의를 선도한 화가 마네의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이다. 19세기 대도시 파리에 등장한 오락 장소인 카페의 콘서트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조명등, 서커스 공연을 관람하는 수많은 손님들의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친다. 거울을 배경으로 선 여급의 모습은 도시민의 소외를 반영한 듯 고독하다. 거울 속에 비친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여급과 실제 화면 중심에 위치한 고독한 여급의 부조화는 그림에 대한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다.

세 번째로 주목할 작품은 후기인상주의 화가인 고흐의 자화상이다. 고흐는 1889년 정신착란을 일으켜 자신의 귀를 자른다. 사건 직후 그린 그림이 흰 붕대로 귀를 감은 채 관람자를 응시하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그린 〈귀를 자른 자화상〉이다. 고흐는 같은 소재로 두 점의 자화상을 그렸는데 이중 한 점이 코톨

드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다. 작품은 두터운 외투와 모자를 쓰고 자신의 스튜디오에 서 있는 고흐를 보여준다. 스튜디오가 추운 것일까? 아니면 곧 다가올 비극적 결말을 예고하는 서늘함일까? 비극적 사건에 비해 화가의 표정은 매우 온화하면서 동시에 우울하다. 오른쪽 배경에 등장하는 일본 우끼요에 판화는 일본 문화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보여준다. 일본은 고흐에게 따뜻한 남쪽의 이상향이자 안식처로 인식되었다.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을 찾고 싶은 고흐에게 일본은 사실적인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꿈의 이상향과 같은 곳이었다.

이들 명화들은 단순히 보관되고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미술사가들과 학생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코톨드 갤러리의 명성은 오늘날 영국 현대미술 연구의 중심으로 불리는 코톨드 미술연구소와 무관하지 않다. 코톨드 미술연구소는 갤러리의 소장품 연구를 전담할 뿐 아니라, 미술 전문 인력 양성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그 실력을 인정받아 세계 미술계의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처럼 미술 교육과 전시 시설이 함께 위치한 코톨드의 장점은, 우수한 인력 양성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세계 미술사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연구 장소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무료로 운영되는 런던의 다른 미술관들과는 달리 사설 미술관인 코톨드 갤러리는 1인당 6파운드(한화 약 일만원)의 입장료를 받는다. 일정이 가능하다면 월요일에 찾아가자. 매주 월요일은 3파운드에 할인 입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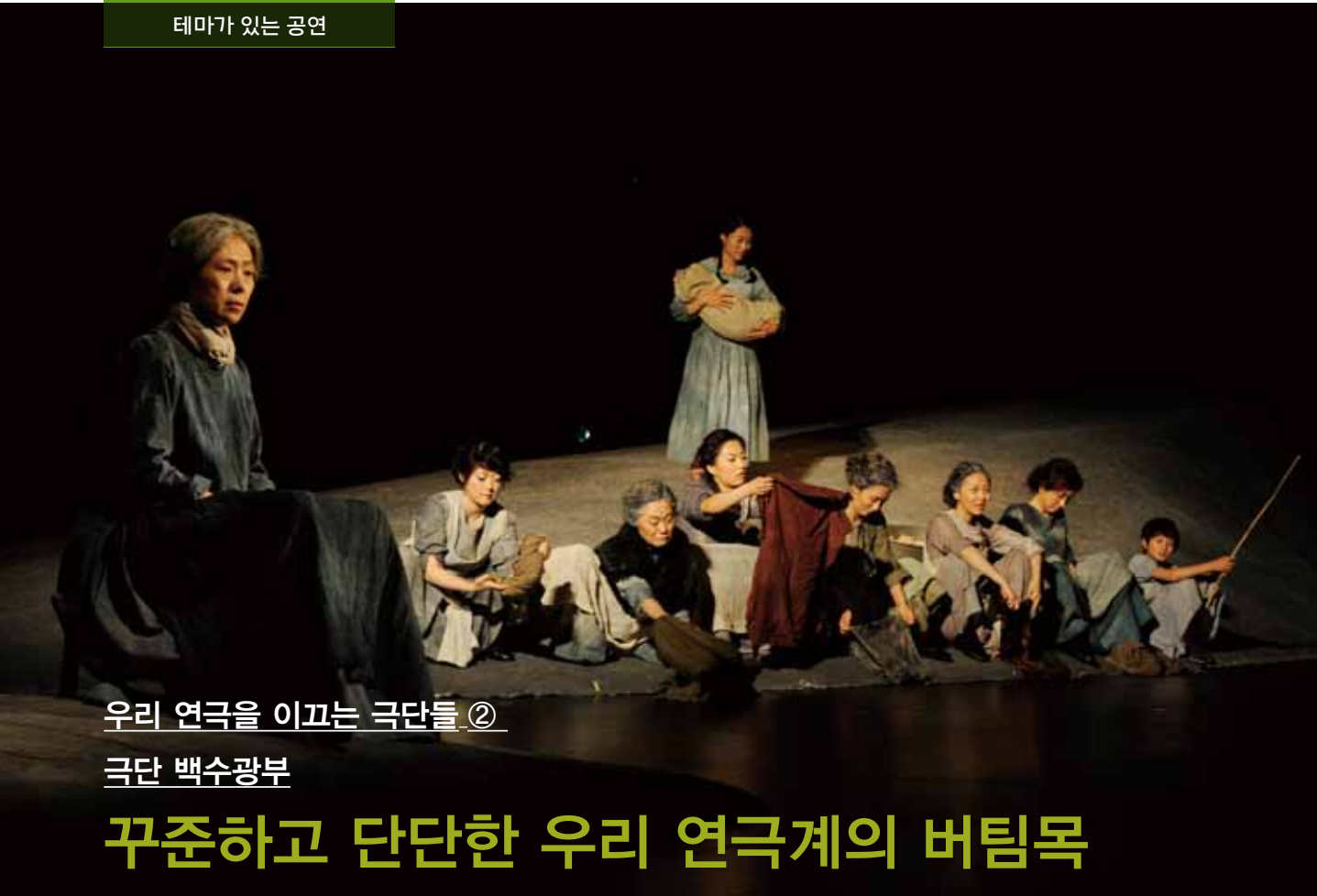
글 강은주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학예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이화여대와 한양대, 계원예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4	5	6
---	---	---

4. 코톨드 갤러리 전시장 전경
5. 서머셋 하우스의 스트랜드 사이드 입구
6. 서머셋 하우스와 내부 광장



우리 연극을 이끄는 극단들 ②

극단 백수광부

꾸준하고 단단한 우리 연극계의 버팀목

1996년, 연출가 이성열을 중심으로 2~30대 젊은 배우들이 모여 집단 창작을 위한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면서 극단 백수광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사실 처음 백수광부는 정식 극단이 아니라 워크숍 공연 〈햄버거를 위한 명상〉을 위한 임시 프로젝트 그룹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후 백수광부의 이름을 건 작업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고 어느새 18년이 흘렀다. 처음 12명으로 시작한 단원들도 벌써 50명이 넘어섰고 꾸준하고 특색 있는 공연들을 통해 백수광부는 우리 연극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중견극단으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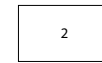
창단 초기 백수광부의 작업들은 배우의 몸과 즉흥연기를 통한 해체적인 연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시기에는 〈굿모닝? 체흡!〉과 윤영선의 〈키스〉와 같은 공동 각색, 재구성 작품이 작업의

주를 이루었다. 또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그린 벤치〉, 〈물고기의 축제〉 등 재일교포 작가인 유미리의 작품을 무대에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특히 〈그린 벤치〉는 무너져가는 한 가정의 위태로운 심리를 섬세하고도 강렬하게 묘사한 무대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몇 년 전부터 백수광부는 문학적 텍스트를 기초로 이를 현대적인 무대 언어로 재구성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레스테스〉, 〈안티고네〉, 〈봄날〉, 〈과부들〉 등 동서양 희곡을 넘나들며 명작의 새로운 해석에 힘을 쏟으면서 한편으로는 동시대 작가인 최치언의 도발적인 작품들, 그리고 배우들의 공동창작 작품인 〈야메의사〉시리즈를 통해 극단 초기의 해체적인 형식과 집단 창작의 끈 역시 놓지 않고 있다.



1. 〈과부들〉 공연장면 ©코르코르디움



2. 〈그린벤치〉 공연장면 ©극단 백수광부



3. 〈봄날〉 공연장면 ©극단 백수광부

단단한 존재감의 작품과 배우들

처음 연극을 시작할 무렵부터 “추운 겨울날, 형광등 불빛 아래 소주를 마실 때 손에 딱 쥐어지는 소주병의 차갑고 단단한 느낌”을 무대 위에 올리고 싶었다는 이성열 연출의 말대로 백수광부의 작품들은 현실과 환상, 실험과 해체를 자유로이 오가는 중에서도 단단하고 확실하게 “있음”이 느껴지는 작품들을 무대 위에 올려왔다. 백수광부 출신의 배우들 역시 마찬가지다. 무대 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그들이 떠받치고 있는 부분은 무너지는 법이 없다. 단번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연기보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연기로 백수광부 배우들은 신뢰를 쌓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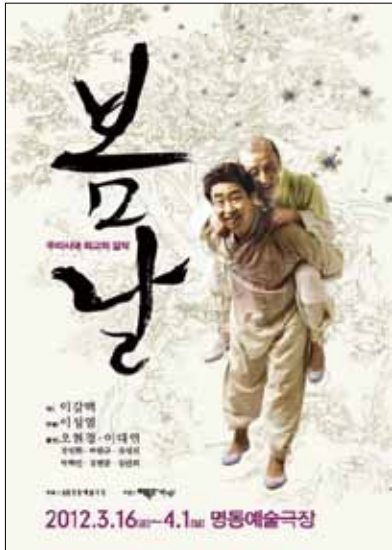
극단 자체의 작업과 공연 외에도 그동안 백수광부가 우리 연극계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크다. 무엇보다 이 극단은 그동안 대학로의 중견극단들과 연극인들을 끌어 모으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해왔다. 대표적인 이성열 연출만 해도 일찍부터 혜화동 1번지 2기동인과 프로젝트 극단 파티, 그리고 정보소극장 모임 등 각종 동인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실질적



인 대학로의 마당발 역할을 맡아왔다. 이는 곧 연극이 현실적인 여건이나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당당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극단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그의 지론 때문이다. 덕분에 백수광부는 타 극단과의 작업이 가장 빈번한 극단 중 하나로 손꼽히며 친분이 있는 여러 극단과 서로의 작업을 넘나들며 함께 성장해가고 있다. 외부 연출의 극단 내 작업과 단원들의 외부 작업을 적극 장려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배우의 매력과 상상력이 빚어낸 수작

백수광부의 최근작 중 가장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은 작품으로는 역시 〈봄날〉과 〈과부들〉을 들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제작극단으로서 백수광부의 저력을 잘 보여준 대극장 작품이자 성공적인 재공연을 마친 작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둘 다 희곡의 힘, 배우의 힘을 무대 위에 오롯이 살려낸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강백 작, 이성열 연출의 〈봄날〉은 삶과 죽음, 젊음과 늙음을 아우르는 인생



의 순환을 시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이강백의 우화적이고 함축적인 대사는 때로 말보다 긴 여운을 남기고 커다란 무대 위에는 언덕길 아래 덩그러니 놓여진 초가집 하나가 은유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시적인 대사와 시적인 무대, 그 나머지를 채우는 것은 오로지 배우들의 연기뿐이다. 〈봄날〉을 이야기할 때면 아버지 역을 맡았던 오현경의 명연기를 빼놓을 수 없다. 첫 등장에서부터 오현경은 무대를 꽉 채우는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휘적휘적 걸어 내려오는 발걸음과 헛헛하게 내뿜는 대사만으로도 그는 ‘아버지’란 인물이 지닌 욕망과 허함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또렷하게 부각된다. 덩치로 보면 두 배는 족히 될 장정들 사이에서 그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왜소해 보이지 않는다. 작은 몸에서 뿜어 나오는 에너지와 단호한 호통은 다 큰 아들 모두를 압도할 정도다. 여기에 넉넉한 마음으로 동생들을 품어주는 큰형 역의 이대연과 각자 개성을 뽐내면서도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쳐 노련한 앙상블을 보여준 다섯 형제들

까지 어우러져 〈봄날〉은 오랜만에 배우의 힘을 또렷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준 무대였다. 덕분에 〈봄날〉은 2009년 서울연극제 연출상, 대한민국연극대상 연기대상을 수상하고 평론가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연극베스트3에 선정되는 등 관객과 평단의 고른 호평을 받았다. 이후 〈봄날〉은 극단 백수광부의 대표작으로 평가받으며 2011년에는 극단 백수광부 창단 15주년 기념작으로 다시 공연되었고 그 후 명동에 술극장 공동제작 공모에 선정되어 또 한 번 무대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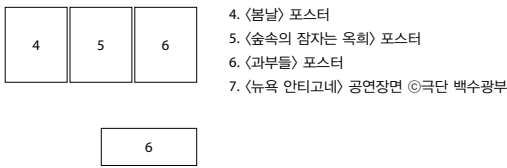


제작극단의 저력을 보여준 대작

한편 얼마 전 재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아리엘 도르프만 작, 이성열 연출의 〈과부들〉은 제작극단으로서 백수광부의 힘을 오롯이 보여준 ‘대작’이라 할 수 있다. 원작을 쓴 칠레 출신의 망명 작가 도르프만은 ‘군부 독재하의 실종된 사람들’이란 민감한 현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제의적이고 신화적인 상상력을 보태 보편적이고 문학적인 울림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름도 시대도 알 수 없는 마을, 시체가 떠내려 오는 강, 강가에 앉아 남자들을 기다리는 서른여섯 명의 과부는 그 자체로 상징성을 가지면서 이 작품을 1970년대 피노체트 군부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시켜 나갔다.

무엇보다 〈과부들〉은 이지하, 박완규, 박윤정, 김민선 등 현재 극단 백수광부를 이끌어가는 배우들과 예수정, 한명구, 전국향 등 그동안 백수광부와 인연이 깊은 명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었다. 배우들의 면면들만 보아도 창단 18주년을 맞은 중견극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백수광부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작품이라 할 만하다. 특히 주인공 소피아 역을 맡은 예수정은 망각의 세월에 대항하는 강인한 여인을 통해 전체 작품의 축을 단단하게 받쳐주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어린 손자에게 죽음을 이기는 신념을 이야기해주는 장면에서는 응축된 감정과 집중력으로 관객을 압도시켰다. 작품이 지닌 묵직하고 뜨거운 메시지와 배우들의 열연에 힘입어 〈과부들〉은 초연 당시 한국연극평론가협회가 뽑은 ‘올해의 연극 베스트3’와 동아연극상 작품상에 선정되면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올라간 재공연 역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많은 관객들에게 ‘진실을 기다리는 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과부들〉의 무대에서 가장 뚜렷하게 부각된 이미지는 ‘강’이다. 여기서 강은 과부들이 빨래하고 밥을 짓는 삶의 공간

이자 도도히 흐르는 역사,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고 흘러 결국 밝혀지고야 말 ‘진실’을 상징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그 물길에 커지고 강해지는 작품 속 강물처럼, 창단 20주년을 향해가는 백수광부의 꾸준한 행보 역시 그 흐름 속에서 더욱 크고 단단한 모습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글 김주연

고려대학교 노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러시아 연극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월간 『객석』에서 연극 담당 기자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연극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연극 칼럼니스트와 드라마터그로 활동하고 있다.

극단 백수광부

극단 연혁

1996년 창단, 창단공연 〈햄버거에 대한 명상〉

주요 극단 작품

〈뉴욕 안티고네〉〈여행〉〈그린 벤치〉〈미친극〉
〈봄날〉〈오레스테스〉〈언니들〉〈숲속의 잠자는 옥희〉
〈과부들〉 외

극단 수상경력

〈그린벤치〉 2005 서울연극제 우수상, 연출상, 연기상, 신인연기상, 무대미술상
〈봄날〉 2009 서울연극제 연출상, 올해의 연극베스트3
〈과부들〉 2012 동아연극상 작품상, 올해의 연극베스트3, 공연 베스트7

바로크 오페라



오페라의 역사는 400년이 조금 넘었다. 유력한 예술 장르로서 결코 유구한 전통은 아닌 셈이다. 르네상스의 끝자락에 그 예술적 중심지였던 꽃의 도시 피렌체에서 탄생했는데 바로크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하더니 100년이 지나지 않아 유럽 극장계를 석권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오페라는 대부분 19세기의 산물이지만 오페라의 진정한 전성기는 바로크 후반기인 18세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



오페라의 탄생과 발전

오페라의 탄생은 피렌체의 지식인 그룹 카메라타(camerata)의 ‘고대 그리스 비극 부활운동’에서 비롯된다. 피렌체에는 프랑스 궁전에까지 고급문화를 전파한 메디치 가문뿐 아니라 그밖에도 예술을 사랑한 명문 가문들이 있었다. 바르디 가문도 그중 하나였다. 카메라타는 바르디 가문의 조반니가 후원했는데, 그 중심에 빈첸초 갈릴레이(1520~1591)라는 천재가 있었다.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부친이다. 카메라타의 멤버들은 고대 그리스 연극을 이상화하여 “시와 음악을 중심으로 여기에 춤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장르가 결합된 도덕적 목적의 종합예술”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음악은 르네상스 종교음악의 복잡한 폴리포니(대위법적 음악)에 반발하여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모노디’를 주창했다. 단선율의 가창양식에 단순한 반주가 붙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오페라인 야코포 페리의 <다프네>가 1597년 등장한다. 그리스 신화를 다룬 것을 보더라도 오페라의 이상이 고대 그리스 예술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오페라는 현재 악보가 전하지 않는 같은 작곡가의 <오르페오>(1600)로,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다. 당시에는 오페라를 ‘드라마 인 무지카’ 즉 음악이 있는 극, 혹은 음악이 있는 복합물이라는 뜻의 ‘오페라 인 무지카’로 불렀다. 오페라란 라틴어로 ‘작품’을 뜻하는 오푸스(opus)의 복수형이다. 즉 인류가 창조한 최고의 작품들을 모아놓은 복합적, 종합적 장르라는 의미였다. 이렇게 해서 음악과 시(극), 춤 등이 어우러진 인류 최고의 종합예술은 간단히 오페라로 불리게 된다. 오늘날까지도 널리 공연되는 최초의 걸작은 1607년 초연된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 오르페오 이야기는 바로크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소재의 하나였는데 몬테베르디는 전원극의 화사함과 오르페오의 슬픔을 멋지게

조화시키면서 그 이후의 어떤 오페라도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의 격조를 불어넣었다. 원래 만토바 궁전악단을 이끌었던 몬테베르디의 초기 오페라들은 이곳 영주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베네치아 산마르코 교회의 악장으로 옮겨가면서 <오르페오>를 제외한 다른 오페라의 악보는 행방이 묘연해졌다. 몬테베르디 역시 교회의 직분에 충실하고자 오페라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다가 1637년 세계 최초의 오페라하우스가 베네치아에 문을 연다. 귀족의 저택에서 소수의 선택받은 초대 손님에게만 공개되던 오페라가 이제 다수의 청중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70세를 넘겼지만 이에 자극받은 몬테베르디는 1640년대에 <울리세의 귀환>과 <포페아의 대관>이라는 두 작품을 더 작곡한다. 전자는 그리스 신화의 트로이 전쟁, 후자는 고대 로마의 역사에서 취재한 것이다. 특히 <포페아의 대관>은 4세기 전 작품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본도 훌륭하고 몬테베르디의 음악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본질에 아주 솔직하고 대담하게 다가간다.

바로크 오페라의 대중화 : 오페라 세리아

베네치아의 오페라하우스는 몬테베르디의 두 걸작을 낳았지만 문화사적으로는 역사상 최초로 음악을 대규모 극장의 상업용 무대에 올렸다는 의미가 있다. 즉 대중적인 청중을 위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베네치아에만 해도 몇 개의 오페라 극장이 더 건축되는 등 주요 도시에 오페라 극장이 생겨났고 17세기 중반을 지나자 적어도 이탈리아에서는 오페라가 연극을 압도하는 인기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오페라 양식에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우선 레치타티보와 아리아가 점차 분화되었다. 레치타티보란 줄거리를 전달하고 극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로서 낭송조의 가사를 간단한 선율에 얹어 부르는 것으로 절반쯤만 노래에 해당한다.

1

2

1. 바로크 오페라의 공연모습
2. 인류최초의 걸작오페라 ‘오르페오’ 악보 표지

반면 아리아는 감정 표현을 위주로 하며 음악과 가수를 돋보이게 하는 장치다. 관객들은 아리아를 들으러 오페라 극장을 찾는 것이다. 드디어 바로크 오페라의 정점인 오페라 세리아라는 형태가 등장한다. 오페라 세리아(opera seria)는 정가극(正歌劇)으로 번역된다. 비극 오페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지하게 진행되지만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18세기 초에 확립되어 1830년경까지 명맥을 유지했는데, 이탈리아 오페라이지만 불어 오페라를 고집한 프랑스 궁정을 제외한 전 유럽에서 인기를 끌었다. 오페라 세리아의 최고 스타는 카스트라토였다. 변성기 이전의 소년을 거세하여 성인이 된 다음에도 소프라노나 알토의 음역을 유지하도록 한 것인데, 오페라에서 여성 역을 맡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 '영웅적인 남성주역'을 불렀다. 거세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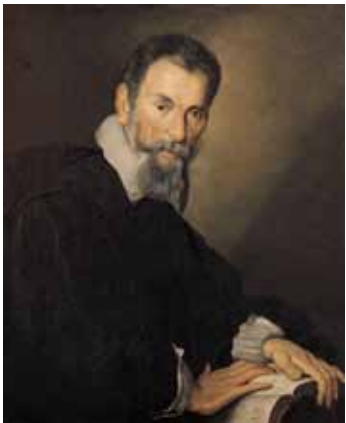
성된 아리아를 교대로 들려주는 철저 성악위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창과 합창도 별로 없이 독창 가수들의 노래대결이었던 셈이다. 예컨대 런던의 극장에서 오페라 세리아가 공연된다고 하면 영국 청중들은 이탈리아어 가사를 거의 알아듣지 못했지만 내용은 그리스 신화나 유명한 역사적 사건에서 따온 것이므로 가사를 못 알아들어든 누가 무슨 역을 맡았는지 알면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도 막간 휴식 시간에 청중들의 대화는 오페라의 즐거이나 음악적 우수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느 가수가 더 잘 불렀냐 하는 것에 집중되었을 것이다. '나가수'의 바로크 오페라 편이었던 셈이다. 아리아에도 공식이 있었다. 중요한 노래는 다 카포 아리아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A-B-A' 구성으로 A'에서는 앞부분의 선율을 반복하되 여기에 화려한 즉흥풍의 장식음을 부가하여 가

수의 기량을 뽐내도록 했다. 아리아의 스타일도 대체로 정해져 있었다. 예컨대 아리아 디 템페스타는 '태풍의 아리아'란 것으로 격정적인 감성을 빠른 악구에 담는 것이고, 아리아 부콜리크는 '전원풍의 아리아'로서 평온한 심정을 노래한다. 아리아 디 푸로레는 '꽃의 아리아'로 밝은 기쁨을 노래하며, 라멘토는 느린 '비가(悲歌)'를 뜻한다. 관객들은 정형화된 노래의 패턴만으로도 어떤 감정의 노래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노래만이 아니라 대본에도 교과서적인 양식이 있었다. 18세기의 오페라 세리아의 가장 인기 있는 작가는 메타스타시오였는데, 소재는 주로 신화 혹은 신화화된 역사에서 찾

았고, 사각관계가 포함된 6명의 주요인물이 얹치락뒤치락 하다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 즉 신이나 국왕 같은 절대권능의 교통정리로 원래 질서대로 돌아가는 피날레로 끝맺었다. 당시 가장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는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였으나 오늘날 가장 많이 연주되는 것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이 영국의 오페라 극장을 위해 작곡한 것들이다. 또 바로크 협주곡의 왕이라는 안토니오 비발디의 오페라 악보도 20세기에 대거 악보가 발견되어 연주가 늘어나고 있다.

오페라 세리아에 대한 반발

오페라 세리아의 대유행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우선 당시 유럽 최강국이었던 프랑스의 자존심은 이탈리아 오페라가 프랑스를 휩쓰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민간이 아니라 왕실이 프랑스 오페라 공연을 주도했고,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함에 어울리는 귀족주의와 볼거리를 강조했다. 서곡과 프롤로그가 딸린 5막 구성을 선호했고, 오케스트라의 음향은 프랑스보다 화려했으며, 발레나 무대장치 등 시각적 요소를 중시하는 편이었다. 또 국왕이 직접 관람하는 오페라였으므로 거세 가수의 출연을 막았다. 프랑스 오페라에 카스트라토가 없는 대신 높은 테너에 해당하는 오트-콩트르(haute-contre)가 중용된 이유다. 역시 이탈리아 오페라가 득세하던 오스트리아의 빈에서는 오페라 개혁운동이 일어난다. 개혁운동가들은 “진정한 음악과 극은 사라지고 가수들을 위한 의



미 없는 노래의 향연으로 전락했다”고 오페라 세리아의 폐해를 공격했다. 보헤미아 출신의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루크가 주도한 개혁운동은 가수에 의한 다 카포 아리아의 남용을 제한하고 중창과 합창의 비중을 확대하며 발레와 무대장치 등 노래 이외의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성과는 너무나 미미해서 주도자인 글루크조차 파리로 근거지를 옮기게 되지만 19세기 초에 이르러 오페라 세리아가 퇴조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3

4

3. 가장 유명한 카스트라토인 파리넬리
4. 영국에서 이탈리아 스타일로 작곡한 헨델

5

6

5. 오페라초창기의 대표작곡가 몬테베르디
6. 오페라개혁운동가 글루크

글 유형 종

연세대학교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1995년부터 음악과 무용에 관한 칼럼을 썼고 현재는 무지크바움 대표로 있으면서 강의를 하고 글을 쓴다.

수용음악치료법

1부. 조절음악치료(RegulartiveMusiktherapie) 소개

2부. 조절음악치료 1~2단계의 과정 설명

3부. 조절음악치료 4~6단계 이론과 실제

> > 치유음악은 불협화를 피하지 않는다.
그것은 고통으로 이끌거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균형 잡는 건 사랑이다.
그것은 거센 바람에 떠돌 수도 있지만,
연민이 키의 역할을 한다.
치유음악은 노예의 신세를 샤우팅 블루스로,
압제를 자유로운 재즈의 환희로 변형시킨다.
치유음악은 아이디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음악가들의 소리를 통해 당신을
험난한 고립에서 마음의 교제로 데려간다.

W. A. Mathieu, [The Musical Life]

단계별 치료과정소개

지난 호에 소개한 ‘조절음악치료법 입문’의 총 6단계 중 이번 호에는 1~2단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치료법은 대부분 집단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집단 치료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며 이후 최종 호에 개별을 위한 실제 적용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1단계 - 환경에 온전한 접촉을 위한 방아물 및 저항 이해하기(부정적 요소를 인정하기)

치료방법 소개《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 또는 기분을 내버리지 말고, 신체와 음악을 지각하도록 몸을 내맡겨 보십시오.》

1단계의 목표는 먼저 조절음악치료의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치료법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내적 저항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의 다양한 내면의 문제들은 초기 과정에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사는 능동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중재기술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참여 성원들에게 각자 자신의 지각력을 통해 ‘알아차림’ 하는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지각의 대상영역을 통해 가능한 많은 내용들을 경험하고 ‘알아차림’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음악을 듣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지각의 대상영역, 즉 [음악], [신체], [내면]의 3개 영역을 두루두루 옮겨 다니며 집중하면서 지각된, 즉 알아차린 내용들을 의식적으로 마음에 머물게 하고 이후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치료사는 이 과정에서 전형적인 주문을 통해 참여자에게 실행과제를 제시한다.; “여러분은 이제 현재 생각과 감정 그리고 현존하는 기분을 배제하지 말고 음악에 몸을 내맡겨 봅니다.” 여기서 ‘배제하지 말고’의 의미는 참여자들이 ‘저항하거나, 억압하지 마세요’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이 주문이 참여자들에게 명료하게 전달되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자유롭게 머물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참여자들이 이 치료법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나 개인적인 소망에 따라 내면의 긴장과 불편함이 쉽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감상을 통한 실행 이후에 집단 참여자들은 대화 속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인도된다.; “과정 속에서 무엇을 지각하셨나요?” 이후 두 번째 이어지는 질문은 “더불어 더 지각된 내용은 무엇인가요?”이다. 대화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치료적 과정의 속력을 올릴 수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신체, 음악, 그리고 사고와 감정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의와 호기심을 갖는 정도에 달려있다. 3부분의 지각영역에 자발적으로 접촉하는 것, 즉 지각 훈련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주는 것과 성원들이 집단 안에서 서로 사실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1단계 과정에서는 치료사와 참여자 간의 신뢰형성이 필요하며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내면의 에너지를 활성화하면서 지각력을 극대화해야 하는 어려움과 수고스러운 일들을 감내해야 하는 당위성을 전달해야 하는 필요성을 갖는다. 이 단계는 위의 전제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후 이어지는 어느 단계보다 시간적으로 가장 오래 걸린다. 참여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가능한 빨리 다음 단계로 서둘러서 진입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참여 성원들이 각 영역에서

지각한 내용에 대해 가능한 많은 종류의 다양한 표현이 일어날 때까지는 서둘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치료사는 편안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도와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참여자들의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점차적으로 이것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과제와 더불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와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항상 침착하고 친절하게 다시금 설명해주어야 한다. 음악의 체험을 통해 감정의 변화는 심리적인 돌발상황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갖는다. 무엇보다 신경증환자나 히스테리성 증상을 갖는 대상자들은 과정 초기에 대부분 화려하거나 비이성적인 환상체험을 하거나 또는 충격적인 회상에 대한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이런 병리적 집단의 경우는 치료사가 이들을 관계 안에서 보호해 주고 그들의 지각된 내용들을 보다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며 범람하는 묘사들은 조심스럽게 중재하여야 하며 목적에 부합되는 질문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구체화되도록 해야 한다.

2단계 - 환경과 온전한 접촉에 방해되는 내면의 문제를 세밀하게 찾아보기(인정하는 요소를 세밀하게 살펴보기)

지각의 세분화 《지각된 것과 관련하여 당신의 생각에 무엇인가 더 떠오르는 것이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절음악치료법의 2단계 과정에서는 지각능력의 세분화로 이어진다. 이 단계는 1단계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지각한 것들을 이제는 보다 낱낱이 정확하게 관찰하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세밀하고 정

확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정 중에 각 영역에서 지각된 내용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함축적 의미를 갖는 내용들도 포함한다. 전형적인 1단계의 주문이 “사고와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음악에 내맡겨 보세요”였다면, 2단계에서는 보다 더 집중적으로 관찰을 더욱 촉구하며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여기서는 단지 지금까지 대화로 나눈 큰 영역의 지각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보다 더 정확한 내용들을 섬세하게 기술하는 과제가 주어지게 된다.

2단계의 목표점에 충실히 도달하기 위하여 실행에 앞서 다음과 같은 주문이 이어진다. “가능한 더 정확하게 살펴보시면서 기술해 보도록 하세요!” 또는 “과정에 알아차린 것들로 인해 또 다른 생각이나 감정이 이어지는지 살펴보세요?”를 통해 점차 정확한 표현과 섬세한 기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이것으로 인해 이후 감상을 통한 실행과정에서 보다 더 섬세한 지각능력들이 촉진될 수 있다. 치료사의 의도에 따라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매번 참여자들의 저항이 함께 따라온다. 이것은 의례적으로 전 단계의 수행할 과제에 대한 집중과 노력에 대한 적응력이 여전히 이번 단계까지 함께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과제와 의미에 대한 치료사의 설명과 해석으로 참여자들은 스스로 빠르게 다음단계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자들은 지각력을 통해 알아차린 내용들을 명확히 표현하고 섬세하게 기술하면서 서로 서로에게 다양한 사례로 제시되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일 부정적인 내용이나 증상에 대해 체험이 지각될 경우에는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며 보통의 경우 암시적인 불안이 형성되어 심리적인 방어, 즉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거절하는 행위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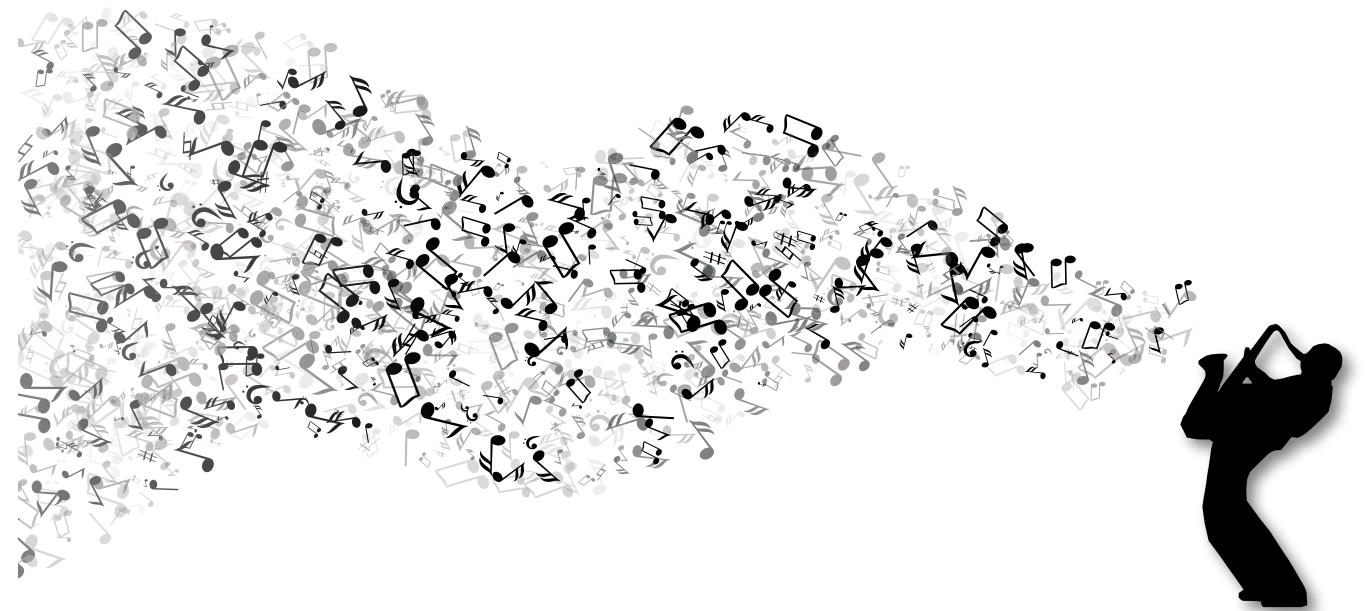
들이 아주 끈질기게 나타난다. 치료사는 이런 증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현상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참여자의 내면 논쟁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일어나고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지각력을 통해 넓게(1단계) 그리고 깊게(2단계) 이루어지는 온전한 알아차림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갖는다. 먼저 참여자의 비현실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왜곡된 내면의 한계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후 개인 인생의 요인들 또는 문제적 증상이나 병적상황들이 내면에서 활성화되어 결국 마음의 문제가 되는 갈등상황으로 돌출되는 상황으로 현상화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또한 1단계에서처럼 시간의 제한에 따른 부담을 갖지 않고 참여자들이 내면의 상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작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되지 못한다면 이후에 틀에 박힌 과정의 형

식만 남게 되고 충분한 긴장이완도 생기지 않으며 근본적인 자아인식이나 자기논쟁을 위한 기본적인 지각력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장받지 못한다. 

글 하준성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음악치료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Dipl. MT)를 받았다.
독일 공인음악치료사로 현재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음악치료임상교수와 'HJS음악치료발달연구소' 소장, '음악힐링아이' 대표를 맡고 있다.



조절음악치료법 단계별 진행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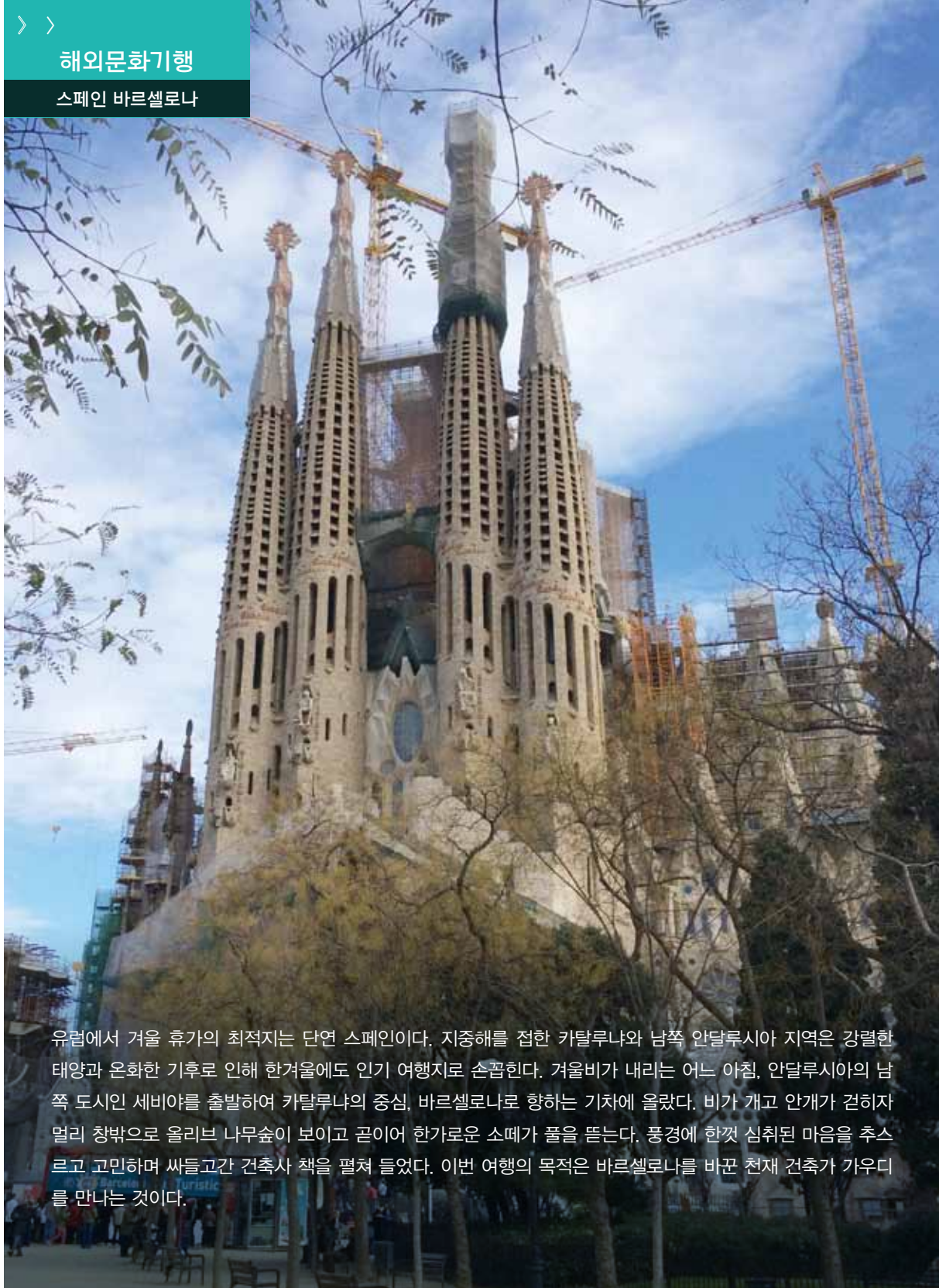
1. 환경에 온전한 접촉을 위한 방어물 및 저항 인식하기(부정적 요소를 인정하기)
2. 환경과 온전한 접촉에 방해되는 내면의 문제를 세밀하게 찾아보기(인정하는 요소를 세밀하게 살펴보기)
3. 내면 감정의 반응을 주시해 보고 표현하기
4. '받아들인 지각'과 '안 받아들인 지각'에 대한 구분 및 표현하기
5.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각'에 대한 정확한 관찰 촉구하기
6. 긴장의 조절과 불안의 허용을 위한 의식적인 행위 전략의 활용 촉구하기

조절음악치료법 지침

- ▶ 음악의 설정: 개인의 감정이 순수하게 이입될 수 있고 주관적인 판단을 유도할 수 있기에 가장 좋은 장르인 클래식 음악을 사용한다. 단 성악이 섞여있거나 특별한 기억이나 회상과 관련되어 있는 음악은 제외된다.
- ▶ 과정실행에 반드시 균형을 잡은 편안한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누워서 실행하는 것은 금물이며 가능한 의자에 앉아 몸의 중심을 약간 뒤로 하는 것이 좋다. 과정 중에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편안하게 변경할 수 있다.
- ▶ 눈을 감음으로써 큰 불편함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눈은 되도록 감도록 한다.
- ▶ 마음의 태도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한다.
마음의 방어(도망, 회피, 갈등, 변화하고픈 마음, 참고 견딤)를 수용하며
3개 대상범위(신체, 생각과 느낌, 음악)에 어떤 것들이 지각되는지 자신을 내맡기는 태도를 필요로 한다.



해외문화 기행



1
 2

1. 바르셀로나의 상징이 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2. 바르셀로나 항구의 모습. 지중해를 향해 손짓하는 콜롬부스의 탑이 보인다

태양의 도시 바르셀로나, 천재 가우디를 품다

예술의 도시, 바르셀로나

1493년 신대륙 항해를 마친 콜롬부스는 바르셀로나 항을 통해 유럽에 입성한다. 이탈리아인 콜롬부스의 가능성을 믿고 그의 도전을 지원한 이사벨 여왕의 해안은 이후 스페인을 해상 강국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콜롬부스가 스페인에 막대한 식민지 개척의 권한을 가져다 준 16세기 이후, 바르셀로나는 카탈루냐 지역, 더 나아가 스페인의 무역 기점이자 경제적 중심지가 된 것이다. 바르셀로나 항구에는 이를 기념한 콜롬부스의 탑이 세워져 있다. 지중해를 넘어 세계를 향한 스페인 제국의 야심을 엿볼 수 있는 기념물이다. 그러나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르셀로나는 콜롬부스보다 더 중요한 인물들을 떠올리게 한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피카소와 후앙 미로, 그리고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í Cornet, 1852-1926)가 그들이다. 카탈루냐 남쪽 작은 해안마을인 말라가에서 태어나 열네살

에 바르셀로나 미술학교에 입학하여 입체파의 선구자로 성장한 피카소,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 독특한 초현실주의 화풍을 완성한 미로는 영원한 바르셀로나의 자랑이다. 그래서 몬주익 성 인근에 위치한 후앙 미로 미술관과 도심 한가운데 고딕 지구에 위치한 피카소 미술관에는 사계절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1907년 피카소가 그린 최초의 입체파 작품인 〈아비뇽의 처녀들〉의 배경이 된 아비뇽 거리도 바르셀로나에 있다. 과거 사창가였다는 그곳을 지금은 화려한 쇼핑 상점들이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름 높은 화가들의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를 진정한 예술의 도시로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천재 건축가 가우디이다. 바르셀로나는 도시 전체가 가우디의 작품 전시장이라 할 만하다. 발길 닿는 곳곳이 가우디의 흔적으로 살아있는 도시. 그 자취를 찾아가는 여행은 바르셀로나의 명물 거리, 람브라스에서 출발한다.

유럽에서 겨울 휴가의 최적지는 단연 스페인이다. 지중해를 접한 카탈루냐와 남쪽 안달루시아 지역은 강렬한 태양과 온화한 기후로 인해 한겨울에도 인기 여행지로 손꼽힌다. 겨울비가 내리는 어느 아침, 안달루시아의 남쪽 도시인 세비야를 출발하여 카탈루냐의 중심, 바르셀로나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비가 개고 안개가 걷히자 멀리 창밖으로 올리브 나무숲이 보이고 곧이어 한가로운 소떼가 풀을 뜯는다. 풍경에 한껏 심취된 마음을 추스르고 고민하며 싸들고간 건축사 책을 펼쳐 들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바르셀로나를 바꾼 천재 건축가 가우디를 만나는 것이다.

가우디와 스페인의 모던 건축

연중 관광객들로 붐비는 람브라스 거리 초입에는 가우디의 초기 작품인 구엘궁전이 위치해 있다. 가우디가 자신의 최대 후원자인 구엘을 위해 1889년 르네상스와 무하네르 양식을 혼합하여 완성한 집이다.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관광객에게 개방되고 있다. 궁전 입구에 달린 독특한 디자인의 카탈루냐 문장은 구엘과 가우디가 추구한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꼽힌다.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지녔던 카탈루냐는 15세기 이후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 제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가우디를 비롯한 카탈루냐의 예술가들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며 민족주의를 예술의 전면에 내세웠다. 19세기 말 카탈루냐의 모던 건축의 발전은 바로 민족주의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다. 가우디의 건축 세계를 설명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모데르니سم오(Modernismo)라는 말이다. 미술사에서는 아르누보의 스페인어 명칭쯤으로 여기는데 사실 모데르니سم오는 프랑스와 벨기에를 중심으로 발전한 아르누보와는 다른 카탈루냐 특유의 지역적 특성을 강하게 반영한다. 모데르니سم오는 19세기 말 가우디와 몬타네르 등을 중심으로 바르셀로나의 젊은 건축가들이 카탈루냐 지방의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고자 무하데르 양식과 자연의 영향을 반영하여 주창한 예술운동이자 건축양식이었다. 무하데르 양식은 북아프리카와 인접한 지리적 영향으로 오래전 이슬람 문화를 수용한 스페인의 특색을 반영한 것이다. 서구의 로마네스크와 고딕 건축 양식에 이슬람인들이 만들어낸 칼리프 양식이 결합하여 탄생하였다. 화려한 세라믹 타일과 아라베스크 문양을 사용하는 무하데르 양식의 건축은 오늘날에도 그라나다와 세비야, 코르도바 등의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바르셀로나에는 가우디 외에도 모데르니سم오 건축의 대표자로 꼽히는 몬타네르의 작품이 많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작품이 고딕지구에 있는 카탈라나 음악당이다. ‘꽃의 건축가’라는 명성에 알맞게 화려한 조각으로 장식된 외관이 감탄을 자아낸다. 색색의 타일과 스테인드글라스, 상들리에 조명으로 꾸며진 내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콘서트홀이라 할 만하다. 카탈루냐 지방 최초의 현대식 병원인 산파우 역시 몬타네르의 작품이다. 가우디가 숨을 거둔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병원 곳곳을 장식한 몬타네르 특유의 화려한 타일과 아름다운 조각이 아픈 자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듯하다.

3

3. 1889년 가우디가 후원자 구엘을 위해 지은 구엘궁전
4.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본당 내부

4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구엘공원 그리고 카사 바트요

산 파우 병원에서 가우디 거리를 따라 내려오자, 바르셀로나의 상징이자 가우디의 최고 걸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나타난다. 옥수수 모양의 거대한 4개의 탑이 원경에서부터 시선을 사로잡는다. 1882년 착공된 성당은 처음에는 고딕양식으로 설계되었다고 한다. 이듬해 가우디가 설계를 맡게 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가우디는 자연의 모티브를 바탕으로 무하데르 양식과 초현실주의 양식을 가미하여, 세계 어디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건물 외관을 완성하였다. 숲을 모티브로 한 본당 내부에는 돔과 창을 통해 자연광이 유입되고 있으며, 기하학적 문양의 천장과 기둥 장식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예수의 탄생과 수난을 주제로 구성된 동쪽과 서쪽 파사드는 서로 다른 양식으로 완성된 기독교 조각의 진수를 맛보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제로 한 남쪽 파사드는 아

직 완성되지 않아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다. 성당이 완공되면 세 곳의 파사드를 비교하며 관람하는 재미가 적지 않을 듯하다. 다시 한 번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찾아야 할 이유다. 가우디는 74세에 트램에 치여 사망할 때까지 43년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건축에 매진하였다. 현재 성당 지하에는 가우디의 묘와 건축 박물관이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인 성당 건축을 위한 연구소가 위치해 있다. 방문자들의 기부금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탓에 건축 공정이 느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2030년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바르셀로나 시민들도 반신반의한다. 한화로 2만원이 넘는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버스로 20분가량 이동하면 구엘공원에 도착할 수 있다. 구엘공원은 구엘이 계획한 영국풍 주택지를 위해 1900년부터 1914년까지 가우디가 설계와 공사를 담당했다. 구엘의 사망과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이후 일반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개방됐다. 동화 속에 등장할 법한 앙증맞은 외양을 자랑하는 정문 수위실과 가우디 박물관, 그리고 중앙 계단의 색타일로 장식된 도마뱀 분수는 구엘공원의 마스코트이다. 계단을 오르면 86개의 그리스풍 기둥이 세워진 광장과 자연석을 이용한 산책로, 그리고 색색의 타일로 장식된 파도 모양의 벤치가 놓인 중앙광장이 나타난다. 중앙광장의 벤치에 앉아 일광욕을 즐기다 보면 태양의 도시 바르셀로나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다. 도시의 중심인 카탈루냐 광장의 북쪽으로 연결된 그라시아 거리에는 카사 바트요가 있다. 사업가 바트요의 가족을 위한 주택으로 원래의 건물을 가우디가 리모델링하여 1907년 완공했다. 재건축 당시 ‘빠로 만든 집’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2층 창문



- | | | |
|---|---|---|
| 5 | 6 | 7 |
|---|---|---|
5. 구엘공원의 전경
6. 카사 바트요의 외관
7.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입구의 조각

이 입을 찢 벌린 해골의 모습을 하고 있고 창문 곳곳에 해골 모양의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는 까닭이다. 당초 가우디가 지중해를 모티브로 설계한 만큼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바다 생명체를 연상시킨다. 내부 장식도 물결 모양의 계단과 푸른 타일을 이용하여 바다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옥상에는 웅크린 용의 척추 모양으로 장식된 지붕과 독특한 모양의 굴뚝이 늘어서 있다. 현재 이 건물은 사탕회사인 추파츄스가 소유하고 있다. 카사 바트요와 붙어 있는 카사 아마트예르 역시 스페인 모던 건축의 중요한 장소이니 잊지 말고 들르자. 가우디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건축가 카다팔츠가 초콜릿 제조업자인 안토니오 아마트예르를 위해 지었다. 화려한 타일로 장식된 외관이 초콜릿을 연상시킨다. 현재 1층만 관람이 가능하며, 화려한 색타일 장식과 함께 초콜릿을 만드는 도깨비 조각상을 볼 수 있다. 가우디는 일명 '건축의 시인'으로 불린다. '자연은 신이 창조한 건축인 만큼 인간의 건축은 자연을 배워야 한다'는 가우디의 말은 자연을 통해 완벽하고

유기적인 건축을 완성하고자 한 그의 신념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파밀리아 성당에서 숲을 거닐고 카사 바트요에서 바다 속을 수영하는 듯한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가우디의 예술 세계를 제대로 체험하는 셈이다. 태양을 닮은 도시 바르셀로나는 가우디의 천재성을 인정했고 가우디는 카탈루냐 민족을 위해 그의 재능을 아낌없이 바쳤다. 그 결과 오늘날 바르셀로나는 예술인들이 가장 머물고 싶어 하는 유럽의 도시가 되었다. 

글 강은주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학예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이화여대와 한양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본지에 '테마가 있는 미술 - 세계의 미술관'을 연재 중이다.

ASAC NEWS

54 . . . 2014 단원미술제 작품공모

57 . . . 단원 예술여행

60 . . . 안산문화재단 문화공동체 사업

61 . . . 오케스트라 후원회 결성

‘2014 단원미술제’ 작품공모

국내 최고의 미술축제이자 대한민국 화단을 이끌 수많은 작가들을 배출해 온 ‘단원미술제’ 서예·문인화 부문 작품공모 접수가 6월 2일(월)부터 시작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2014 단원미술제’는 단원 김홍도의 업적을 기리고 한국미술문화를 계승 발전 시키며 예술적 창작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자 전국에서 유일한 관 주도의 공모전으로서 출발, 그동안 미술인들의 신뢰와 함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 단원미술제’는 작년 (재)안산문화재단에서 첫 주관을 시작으로 올해 두 번째 진행되는 행사로, 지금까지 축적된 자원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단원의 도시 안산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미술축제로서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 신진작가들의 창의적이며 다양한 장르의 독창적인 작품공모를 통해 한국현대미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참여 작가들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기회가 장이 될 것이다.

접수방법

본 공모전은 6월 2일(월)부터 6월 4일(수)까지 서예·문인화부문 접수와 8월 23일(토)부터 8월 29일(금)까지 미술부문 접수를 받는다. 참가분야는 서예·문인화부문의 서예(한글, 한문, 전각 포함), 문인화 분야와 미술부문의 평면(한국화, 서양화, 수채

화, 판화, 공예, 사진), 입체(조각, 공예) 2부문으로 나눠 진행 된다.

출품자격은 국적에 관계없이 만18세 이상의 국내·외 거주자로, 미발표작에 한해 가능하다.

자세한 공모요강 및 출품원서는 단원미술관 홈페이지 www.danwon.org 내 온라인 참가 신청배너에 접속해 다운받은 후 방문 및 우편(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성포동) 단원미술관), 또는 웹하드(ID: danwon01 / PW: 1234)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접수 후 단원미술제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 교수 및 평론가 미술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을 선정하게 된다. 특히 미술부문에서는 1, 2차 심사로 더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시일정

선정된 작품은 시상금 지급과 함께 단원미술관에서 7월 15일(화)부터 7월 20일(일)까지 서예·문인화 부문 수상작 전시와 10월 2일(목)부터 10월 25일(토)까지 1, 2부로 나눠 미술부문 수상작 전시를 가질 예정이다.

2014단원미술제 작품공모 접수 관련문의

단원미술관 | 031-481-0503





2014 단원미술제

서예·문인화부

2014 DANWON ART FESTIVAL

공모요강

2014 단원미술제 서예·문인화부문 작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내용 및 출품기간

- 작 품 접 수 : 2014년 6월 2일(월) ~ 6월 4일(수) 3일간(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 한함)
※ 우편접수는 6월 4일(수) 도착분까지 한함
- 부 문 : 서예(한글, 한문, 전각 포함) · 문인화
- 원 서 교 부 : 2014년 3월 ~ 6월 4일(수)
- 전 시 기 간 : 2014년 7월 15일(화) ~ 7월 20일(일) 6일간 단원미술관
- 시 상 : 2014년 7월 15일(화)
- 작 품 규 격 : ① 70×135cm ② 70×200cm ③ 105×200cm
- 접 수 처 : (우)426-83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성포동) 단원미술관
- 심 사 발 표 : 2014년 6월 9일(월) 단원미술관 홈페이지
- 표 구 방 법 : 입선이상 작품은 주최측에서 일괄 표구하되 표구비는 본인부담
※ 표구하지 않으면 낙선 처리함

■시 상 내 용 :	대 상 : 1명	500만원 (매입상)
	최 우수 상 : 2명	각 300만원
	우 수 상 : 5명	각 100만원
	삼 체 상 : 약간명	상장
	특 선 : 약간명	상장
	입 선 : 약간명	상장

※ 시상금에는 세금포함

- 원서교부처 : 단원미술관 홈페이지(www.danwon.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출 품 수 : 1인 3점까지 제한
- 출 품 료 : 5만원 (출품수와 관계없음)
계좌번호 : 농협 317-0005-9264-31 (예금주 :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 작가 본인 명의로 입금, 출품료 반환되지 않음
※ 출품자 전원 도록 증정

2. 작품내용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으로 국내외의 본인이 미발표한 순수 창작 작품
- 전시중 파손등의 위험성이 없는 작품
※ 매입상 해당 작품은 재료, 표구, 액자 등 작품 보존에 손색이 없도록 해야 함
※ 추천작가제 : 12점 이상일때 추천작가로 선정 (대상 12점, 최우수상 6점, 우수상 5점, 삼체상 5점, 특선 3점, 입선 1점)

3. 작품 반출

- 낙선작품 : 심사결과 발표 후 2일 이내
- 전시종료 후 2일 이내(기간 내 찾아가지 않는 작품은 책임지지 아니함)

4. 출품 문의처

- (재)안산문화재단 단원사업부(Tel.031-481-0503 / Fax.031-413-5566)
- 단원미술관 홈페이지 : www.danwon.org

■주최·주관 :  안산시  안 산 문 화 재 단

단원미술제 2014안산
DANWON ART FESTIVAL 2014 ANSAN

THE 16TH
DANWON ART FESTIVAL

제16회 단원미술제 2014. 8. 23 _ 8. 29

전시 기간
2014.10.2 THU - 10.25 SAT

공모 부문

평면 |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판화, 공예, 사진
입체 | 조각, 공예

작품 접수

작품접수(2차) | 2014.9.3 WED - 9.4 THU
접수 및 문의 | 426-83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 (성포동)
단원미술관 Tel. 031-481-0503

참가신청서 | 홈페이지 www.danwon.org
다운로드

시상 내역

대상 (1명) | 상금 2,000만원(매입상)
최우수상 (6명) | 상금 각 500만원(매입상)
우수상 (6명) | 상금 각 100만원
특별상 | 기업매입상
특선 | 상장
입선 | 상장

대상 상금 2,000만원

작품이미지 | 우편 및 인터넷접수 (1차)
홈페이지 www.danwon.org 다운로드

주최 · 주관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Ansan Cultural Foundation

단원미술관 (426-837)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성포동) T. 031-481-0503 www.danwon.org

단원의 발자취를 따라서...

‘2014 단원 김홍도와 떠나는 예술여행’

단원미술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014 단원 김홍도와 떠나는 예술여행’을 운영한다. ‘단원 김홍도와 떠나는 예술여행’은 안산이 낳은 조선의 천재화가 단원 김홍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가 머물렀던 문화유적지 및 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 박물관 탐방프로그램으로 지난해보다 더욱 알차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2014 단원 김홍도와 떠나는 예술여행’은 오는 6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목요일마다 총 8회차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7~8월 여름방학 기간에는 학

생들을 대상으로 2회차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현장체험을 통한 문화역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예술여행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리움미술관 등 김홍도의 작품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 답사를 통해 김홍도의 작품세계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올해는 간송미술관의 첫 외부전시가 열리고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방문, 김홍도의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는다.





더불어 수원화성, 연풍동헌 등 영·정조 시대 단원이 머물렀던 유적지를 돌아봄으로써 화원이자 사인으로서 김홍도가 걸어온 길을 짚어 본다. 여기에 지난 2005년에 화마로 손실된 천년고찰 낙산사의 복원에 사용된 김홍도의 〈낙산사도〉를 비교 감상해 보고, 〈병진년화첩〉의 배경이 된 단양지역의 도담삼봉과 옥순봉, 사인암 등을 찾아 시정이 넘치는 산수화를 그렸던 단원의 예술적 감성을 느껴보게 된다.

올해 예술여행은 답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탐방후기를 공모, 우수 기고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참가자들과의 꾸준한 교류와 교육을 통해 향후 미술관 서포터스 및 홍보요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는 개인 및 가족단위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회차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개요

기간.

2014. 6. 5(목) ~ 9. 25(목) / 8회차

장소.

단원미술관 및 김홍도 관련 문화유적지

참가인원.

320명(회당 40명)

참가대상.

개인 및 가족단위 참가자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단체 참가 불가

참가비.

회당 10,000원(식대 및 간식비 포함)

문의.

단원사업부 031-481-0504

www.danwon.org

회차별 프로그램

회차	일자	프로그램	대상
1회차	6. 05(목)	이론 : 도화서의 별 관람 : 국립중앙박물관, 창덕궁 후원	일반
2회차	6. 12(목)	이론 : 간송문화 – 문화로 나라를 지키다 I 관람 : 경복궁, 동대문디자인플라자	
3회차	6. 19(목)	이론 : 천년고찰의 밑그림, 금강전도 관람 : 양양 낙산사, 경포대	
4회차	6. 26(목)	이론 : 마음으로 그린 풍속화 관람 : 리움미술관	
5회차	7. 31(목)	이론 : 왕의남자, 김홍도 관람 : 수원화성, 용주사, 용건릉	청소년 어린이 교사
6회차	8. 07(목)	이론 : 간송문화-문화로 나라를 지키다 II 관람 : 경복궁, 동대문디자인플라자	
7회차	9. 18(목)	이론 : 음울과 시정이 넘치는 산수화 관람 : 연풍동헌, 수옥폭포	일반
8회차	9. 25(목)	이론 : 진경산수로 꽃피우는 산수화 관람 : 도담삼봉, 옥순봉, 사인암	

※ 회차별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투어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09:30	단원미술관 집결	
09:30 ~ 09:40	참가인원 파악 및 일정 소개	
09:40 ~ 10:00	이론강의	장거리 이동시 생략
10:00 ~ 12:30	단원미술관 → 문화탐방지	버스이동
12:30 ~ 13:30	중식	탐방지 인근 식당
13:30 ~ 15:30	문화탐방지 관람	현장 문화해설사
15:30 ~ 18:00	문화탐방지 → 단원미술관	버스이동
18:00 ~ 18:10	마무리 및 해산	

※ 투어일정 및 이동시간은 회차별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안산문화재단, ‘왁자지껄 우리 동네!’ 사업 추진 “주민이 스스로 만들고 참여한다”

“우리 마을에 가장 적합한 문화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마을 주민 스스로가 직접 각자의 동네에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문화
공동체 사업이 본격화된다.

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이 시민문화공동체 사업인 ‘왁자지껄
우리 동네!’ 사업을 지원한다.

안산프로젝트(All the Neighbor Social Associate Network
PROJECT)로 운영되는 시민문화공동체 사업인 ‘왁자지껄 우리 동
네’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여 개인의 삶을 풍요
롭게 함과 동시에 문화로 공동체 삶을 복원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에 지난해 재단 출범과 함께 예술가와 시민의 협업을 통한 동네문
화공동체 사업(고잔2동)과 공단커뮤니티 사업으로 시범 운영된 바
있다.

올해는 특히 주민들 스스로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이웃과 함께 더
불어 사는 공동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각자
의 마을에 적합한 문화사업을 제안, 추진해 나가게 된다.

왁자지껄은 5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모임이나 단체로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마을 공동체를 도모하는 모든 내용들이 사업대상이
되며, 동 주민센터와 협력 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으로의
확대도 안산문화재단이 후원한다.

또 사업기간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
된 컨설팅단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
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게 된다. 



안산문화재단, ‘안녕?! 오케스트라’ 후원회 결성 고잔동 메가박스 홍희성 대표 후원회장 위촉

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의 ‘안녕?!오케스트라’가 후원회를
조직하고 후원회장에 안산 메가박스 홍희성 대표를 위촉했다.

꿈의 오케스트라 “안산” 〈안녕?!오케스트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으로 안산문화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점기관으로 선정
됐다.

이번 후원회 결성은 지난해 한국의 ‘엘 시스템아’를 이뤘다는 평가와
함께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안산문화재단의 안녕?!오케스트
라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다양한 활동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지난 4월 2일 안산문화재단 회의실에서 메가박스 홍희성 대표를
후원회장으로 위촉하고 1차적으로 10명의 후원회원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홍희성 회장은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안산문화재단의 안녕?!오케
스트라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
왔다. 앞으로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으로(아이들에게) 정말 더 많은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회는 향후 매월 1차례 정기모임과 수시모임을 통해 안산문화재
단 안녕?!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활동사항들을 협의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1
2

계속 꿈 꾸세요, 내 마음 속 왕자님과 공주님.



더 넥스트 페이지

Musical The Next Page

2014. 6. 13 | 금 ~ 18 | 수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화~금요일 8시 | 토요일 3·7시 | 일요일 2·6시

작: 한지연 | 작곡: 박정아 | 연출: 김태형 | 조연: 지혜원 | 음악감독: 김길재 | 출연: 한상식·추정화·이연미·박인배·신대협·조형근·이현진·이지수·박원주·신희정·김수아 | 티켓 R석 4만원·S석 3만원·SS석 2만원 (8세 이상 관람가)
제작: 안산문화재단 | 주최: 안산시문화재단 | 주관: 안산문화재단 | 후원: 안산문화재단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콜센터 080-481-4000 www.ansanart.com

2014. 5+6 vol.42
안산문화재단 김성문화지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이메일 _____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 5. 1 ~ 2014. 6. 10
안산시우체국
제206호

하늘다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안산문화재단 하늘다리 담당자 앞

4 2 5 - 9 0 6

독자설문

1. <하늘다리> 5+6월호에서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2. <하늘다리> 7+8월호에서 만나보고 싶은 인물은?

3. 안산문화재단에서 보고싶은 공연은?

4. 그밖에 <하늘다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5. <하늘다리>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하늘다리> 문의 031-481-4047 (안산문화재단 하늘다리 담당자)

www.ansanart.com



Thanks to Sponsorship

문화나누미 '예술타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현재

총 **313,586,940**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후원금 전액은 문화소외계층 공연관람을 위해 사용됩니다.

행복회원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쉼보레 안산남부영업소, 신한은행농구단, 안산1대학,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기업은행 안산점
김동호, (주)정든, (주)우리미래, 안산중앙신협, (주)코레코, 윤영중, BM산부인과, 드림웍스, 삼우도시시설관리(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지성용역사업소, 하라컴즈, 포스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음악동아리 '딴따라', 안산도시개발㈜
(주)크레디아인터내셔널, 지구촌문화협회 김윤호

나눔회원

박수연, 바리스커피, 헬로우오복성, 김용민, 김운성, 이명식, 허연숙, 황정임, 하양숙, 김영균, 박수현, 버들공방
이유석, 이상철

보람회원

김원해, 송지현, 백종찬, 조남백, 강재근, 손경오(한국공연예술문화기획), 원스페이스, 이엔씨커뮤니티케이션스
맑음이벤트, 김봉식, 다원뮤지컬, 세방기획, 김종호, 대신전시(김기명), PMC프로덕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라이브아트, (주)케이티파워콤, 이양수, 양미경, 주부연극교실 '유혹', 한진택, 유인철, (주)신원엠에스
(주)가람이엠에스, 클린코리아, 덕영엔지니어링, 김일매, 차종영, SR Ent,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
송학천, 보화당, (주)퍼시스케이디, 김명산, 안산시건축사회, 유재학, (주)쇼플레이, 남양숙
아이다운, 주식회사 애드윅컴, 단청닷컴, 김광우, 자연미감, 신바람놀자학교, 한국공예체험문화협회,
And Clay, 아티스토리 미술, 영농조합법인 아이빅스캠프, 젼마트리, 천사부메랑, 김충서
사과와 당근 갤러리, 오형선, 정현욱, 권옥숙SRM